杜諺 二十五

雜賦

分類杜工部詩卷之二十五

雜賦古詩十三首律詩六首絶句二十七首謌九首行十七首

課伐木 幷序

課隷人伯夷辛秀信行等ᄒᆞ야入谷斬陰木ᄒᆞ니人ㅣ日四根止ᄒᆞ니維條伊枚ㅣ正直從然을晨征暮返ᄒᆞ야委積庭內어늘我有藩籬를是缺是補ᄒᆞ고載伐篠簜ᄒᆞ야伊杖支持則旅次于小安ㅣ로라山有虎ㅣ라知禁ㅣ니若恃

仇牙之刹ᄒᆞ면昏黑에搪突ᄒᆞ리라夔人ㅣ屋
壁에列樹白菊ᄒᆞ야菊ᄂᆞᆫ荻ㅣ라鏝爲墻호ᄃᆡ實以
竹ᄒᆞ야示式遏ᄒᆞᄂᆞ니爲與虎로近ᄒᆞ야混淪乎
ㅣ라니無良賓客憂害馬之徒ㅣ苟活爲幸
ᄒᆞᄂᆞ니可嘿息已아作詩ᄒᆞ야示宗武誦ᄒᆞ노라○
奴隷인사ᄅᆞᆷ伯夷辛秀信行도ᄅᆞᆯ課察ᄒᆞ
야묏고ᄅᆡ드러가ᄆᆞᄂᆞᆯ햇남ᄀᆞᆯ버히게호
니사ᄅᆞ미ᄒᆞᄅᆞ네나출버히니ᄉᆞᆺ듬과가
지왜ᄑᆞ直ᄒᆞ야고ᄃᆞᆫ거슬새배가고나죄
도라와ᄇᆞᆯ안해사하ᄂᆞᆯ네울흘이헌ᄃᆡᄅᆞᆯ
이ᄂᆞ내고대ᄅᆞᆯ비혀지여괴오니나그내

로머므러슈매져기便安ᄒᆞ도다뫼해버
미이실ᄉᆡ禁止호ᄆᆞᆯ이ᄅᆞᆯ더니ᄒᆞ쟈가바
톱과너와놀카온몸미드면나조히어듭
거든사ᄅᆞ몸다디ᄅᆞ리라貫ᄢᅦᆺ사ᄅᆞ미
집브르매헌ᄀᆞ를버려셰여홁불라다몰
망ᄀᆞ로뒤대로소ᄒᆞ야곳눌로몰뵈ᄂᆞ니
범과갓가올서섯글가為ᄒᆞ새니라어디
더몯ᄒᆞᆫ나그내몸害홀가시름ᄒᆞ논무리
芻且히사롬온幸삼ᄂᆞ니可히좀좀ᄒᆞ야
말리아ᄒᆡ그를지어宗武를뵈여외오이노
라

長夏無所為客居課奴僕清晨飯其腹持斧入白谷

고녀르메히올이리업스니나그내로사로매죵을課察ᄒᆞ야ᄇᆞᆯ고새배

그비예밥머겨도치가져힌뫼고리드료라 青冥曾巔後十里斬
陰木 陰木ᄋᆞᆫ生山北者ㅣ라一云秋冬애生者ㅣ니松栢之屬ㅣ라○뫼노ᄑᆞᆫ곳뒤
헤十里예ᄀᆞᄂᆞᆯ햇남ᄀᆞᆯ베히게ᄒᆞ라 入肩四根已亭午下山麓
사ᄅᆞᆷㅣ네나ᄌᆞᆯ메여오고마니낫만묏그트로ᄂᆞ려오도다 尚聞丁丁聲
功課各日足 丁丁ᄋᆞᆫ伐木聲ㅣ라○오히려비히ᄂᆞᆫ소리ᄅᆞᆯ드르리로소니
功課ㅣ제여곰날로足ᄒᆞ도다 蒼皮成委積素節相照燭 素節
ᄋᆞᆫ謂木枝斬斷處ㅣ라○프른거프를사히지니힌ᄆᆞ디서르비취엿도다 藉汝
跨小籬當仗苦虛竹 汝ᄂᆞᆫ指木也ㅣ라나모비혀말박고대로거러

울밍ᄀᆞᆯ시리○너를依藉ᄒᆞ야져근울헤ᄆᆞᄅᆞ더르고속뷘대로반ᄃᆞ개ᄀᆡ여믜요리라

空荒咆熊羆乳獸待人肉뷘거츤뎨셔곰ㅣ우ᄅᆞᄂᆞ니삿기치ᄂᆞᆫ즘ᄉᆡᆼㅣ사ᄅᆞᄆᆡ고기를기들오ᄂᆞ니라

不示知禁情豈惟千戈哭言必爲乳獸之呑噬ㅣ니라○禁止ᄒᆞ요몰아ᄂᆞᆫ바들뵈디아니ᄒᆞ면엇뎨오직사호매但주거울리ᄯᆞ

城中賢府主處貴如白屋謂不以貴驕로自居而如村野草埜之人也ㅣ라○城中에어딘貧ㅣ貴ᄒᆞᆫ뎨이슈믈새지뷧사ᄅᆞᆷᄆᆞᄃᆞ니라

蕭蕭理體靜蜂蠆不敢毒言治道ᄅᆞᆯ貴淸淨ᄒᆞ야不以虐政으로害民ㅣ如蜂蠆之毒也ㅣ라○蕭蕭ᄒᆞ다ᄉᆞ리ᄂᆞᆫ政體淸淨ᄒᆞ니蜂蠆ㅣ구틔여

모ᄃᆞ로 ᄆᆞᆯ 아니ᄒᆞ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虎穴連里閭 隄防舊風俗 버믜
굼기 ᄆᆞ올히 니엇ᄂᆞ니 므로 ᄆᆞᆯ 막ᄌᆞᄅᆞᆫ 미 녯 風俗ㅣ로다 泊舟滄江岸久
客慎所觸 滄江 두들게 비를 ᄆᆡ여셔 오란 나그내 버믜 다ᄃᆞᆯ오ᄆᆞᆯ 삼가노라
舍西崖嶠壯 雷雨蔚含蓄 집西ㅅ녀긔 뫼히 壯大ᄒᆞ니 울에 옛
비ᄅᆞᆯ 해 머겻도다 墻宇資屢修 衰年怯幽獨 담과 지블 ᄌᆞ조
修補호ᄆᆞᆯ 資賴ᄒᆞ노니 늘근 나해 幽獨호ᄆᆞᆯ 겁노라 爾曹輕執熱 爲我
忍煩促 爾曹ᄂᆞᆫ 猎伯夷等ㅣ라 ○너희 무리 더위ᄅᆞᆯ ᄆᆞ미니 너겨 나ᄅᆞᆯ 爲ᄒᆞ야 煩
促ᄒᆞ믈 ᄎᆞᆷᄂᆞ다 秋光近青岑 季月當泛菊 報之以微

寒共給酒一斛 季月오謂九月也ㅣ라○ᄆᆞ 飮비치프른묏그데갓갑거 든ᄆᆞᄎᆞᆷ두래반ᄃᆞ기菊花ᄅᆞᆯ버위가ᄌᆞ디 져기서늘ᄒᆞᆫ제술ᄒᆞᆫ셤을다ᄆᆞᆺ주리라

上後園山脚

朱夏熱所嬰清旦步北林 블근녀르메더위 예비므러몰고아 ᄎᆞ미北녁수 프레거로라 小園背高岡挽葛上崎崟 뎌근 위안 히노ᄑᆞᆫ묏부리ᄅᆞᆯ졋ᄂᆞ니츩 을자바머흔뫼해올오라 曠望延駐目飄

飄散疎襟 훤히ᄇᆞ라셔인ᄂᆞᆫ누늘延引ᄒᆞ고 飄飄히섯권옷기ᄌᆞᆯ헤혀노라

潛鱗恨水壯去翼依雲深 水ㅣ壯流則魚不 可潛也ㅣ니라○

ᄌᆞᆷ마랏ᄂᆞᆫ고기ᄂᆞᆫ모리健壯호믈슬코勿謂
ᄂᆞ라가ᄂᆞᆫ새ᄂᆞᆫ구루믜기푸믈봇놋다
地無疆劣於山有陰山北曰陰ㅣ라劣오不似也ㅣ라言地雖廣大
ᄒᆞ나盜賊ㅣ橫縱ᄒᆞ야若無所容身ᄒᆞ니不似山陰之可以避亂也ㅣ니라○ᄯᅡ히ᄀᆞᆺ업
시크다니ᄅᆞ디말라묏ᄀᆞᄂᆞᆯ인ᄂᆞᆫ디와ᄀᆞᆮ디몯ᄒᆞ니라石穤遍天下水
陸無浮沉穤ᄋᆞᆫ音原ㅣ니禾名ㅣ니皮可食以禦飢故로天下ㅣ荒凶ᄒᆞ야舟
車兼載ᄒᆞ야以充糧也ㅣ라○石穤ㅣ天下애ᄀᆞᄃᆞᆨᄒᆞ얏ᄂᆞ니믈와묻과로ᄠᅳ며ᄃᆞ마가
뎌가몰兼ᄒᆞ놋다自我登隴首十年經碧岑隴首ᄂᆞᆫ隴右ㅣ
라○내隴首에오로모로브터열히ᄅᆞᆯ프른뫼ᄒᆞ로디나ᄃᆞ니노라劍門來巫

峽倚薄浩至今 劍門으로브터巫峽에와브 디흴히이제니르런노라 故

園瞎戎馬骨肉失追尋 故園에사ᄒᆞ매모리 어드위시니아ᅀᆞ믈 追尋호ᄆᆞᆯ 일후라

時危無消息老去多歸心 時節ㅣ 바ᄃᆞ라 위ᄐᆞ와消息ㅣ업스니늘거가 매도라갈ᄆᆞᅀᆞ미하도다

志士惜白日久客藉黃金 惜白日오恐功名之未立ㅣ오藉黃 金온爲之資用也ㅣ라○有志ᄒᆞᆫ士 ㅣ白日을앗기고오란나그 내ᄂᆞᆫ黃金을藉賴ᄒᆞᄂᆞ니라

敢爲蘇門嘯庶作梁父吟 ㅣ阮藉ㅣ遇孫登於蘇門山ᄒᆞ니登 ㅣ長嘯而去ᄒᆞ니라○子ㅣ뎌여蘇 門엣퓟ᄅᆞ라몰ᄒᆞ리아 거의梁父吟을ᄒᆞ노라

又上後園山脚

昔我遊山東憶戲東岳陽녜내山東ᄋᆡ노로니東岳陽애노ᄅᆞᆺ

ᄒᆞ던이ᄅᆞᆯᄉᆞ랑ᄒᆞ노라窮秋立日觀矯首望八荒日觀ᄋᆞᆫ泰

山東南峯名ㅣ라○ㅣ乭ᄀᆞ올히日觀애셔머리ᄅᆞᆯ드러八荒ᄋᆞᆯᄇᆞ라오라朱崖

著毫髮碧海吹衣裳朱崖ᄂᆞᆫ海南洲也ㅣ라著毫髮ᄋᆞᆫ望之渺小也

ㅣ라此下로至廢耕桑ᄋᆞᆫ言日觀望見之事ᄒᆞ다○朱崖ㅣᄆᆡ리터리보뎌ᄂᆞᆫᄃᆞᆺ고碧海

ㅣ배옷ᄀᆞ외ᄅᆞᆯ부듸라蓐收困用事玄冥蔚强梁蓐收ᄂᆞᆫ秋

神ㅣ오玄冥ᄋᆞᆫ冬神ㅣ니謂四時ㅣ相代而用事則休者ㅣ已困而主者ㅣ强梁也ㅣ라

○蓐收ㅣ일ᄒᆞᆫ 믈ᄀᆞ바ᄒᆞ고 玄冥ㅣ蔚然히 셰엿더라 逝水自朝宗鎭石各其方 春ㅣ見曰朝ㅣ오 夏ㅣ見曰宗ㅣ니 衆流ㅣ奔趍於海ㅣ 猶諸侯之朝宗于王也ㅣ라○흘러가ᄂᆞᆫ 그리 절로 朝宗ᄒᆞ고 ᄂᆞᆯ렷ᄂᆞᆫ 돌ᄒᆞᆫ 제여곰 그 ᄎᆞ所애 잇더라

平原獨憔悴農力廢耕桑非關風露凋曾是戍役傷 平原郡은 即德州ㅣ니 其民ㅣ傷於戍役而廢農桑也ㅣ라○平原ㅣᄒᆞ올로 憔悴ᄒᆞ니 녀름짓ᄂᆞᆫ 히미 耕桑ᄋᆞᆯ 廢ᄒᆞ도다 ᄇᆞᄅᆞᆷ과 이스레 ᄠᅥ러듀메 關係ᄒᆞᆫ 디 아니니라 실즉이 防戍ᄒᆞᄂᆞᆫ 役使애 傷ᄒᆞ얘니라 於是國用富足以守邊疆 그 ᄢᅢ 나랏 ᄡᅳᆯ 거시 가ᅀᆞ며러 足히 ᄡᅥ곰 邊疆ᄋᆞᆯ 가져시리러니라 朝廷

任猛將遠奪戎虜場 朝廷ㅣ勇猛혼將軍을ᄡᅥ되ᄯᅡ홀머리가아ᅀᆞ니라
到今事反復故老淚萬行 이졔니르러이리反復ᄒᆞ니늘근사ᄅᆞ미눉므를萬行ᄋᆞ로흘리ᄂᆞ다
龜蒙不可見況乃懷故鄉 龜蒙二山ㅣ去東岳近호ᄃᆡ尚不可見ᄒᆞ니況故鄉乎여○龜蒙도可히보디몯ᄒᆞ리로소니ᄒᆞᄆᆞᆯ며故鄉ᄋᆞᆯᄉᆞ랑ᄒᆞ리아
肺萎屬久戰骨出熱中腸 肝肺ㅣ이우러오란사호매다ᄃᆞ랏ᄂᆞ니여위여ᄲᅧ나中腸ᄋᆞᆯ덥다노라
憂來杖匣劒更上林北岡 시르미오거늘匣엣갈ᄒᆞᆯ디퍼수플뒷뫼헤다시올오라
瘴毒猿鳥落峽乾南日黃、 디운毒氣예납과새왜ᄠᅳᆫ

든ᄂᆞ니山峽ㅣᄆᆞᄅᆞ니 南녁ᄒᆡᆺ비치누르도다 秋風亦已起江漢始

如湯 ᄆᆞᅀᆞᆷ ᄇᆞᄅᆞ미 任ᄒᆞ야니로ᄃᆡ ᄯᅩ漢ᄋᆞᆫ 비릇 더운 믈 ᄀᆞᆮ도다 登高欲有

往蕩析川無梁 노ᄑᆞᆫᄃᆡ 올아나가고져 ᄒᆞ나 헤여뎌 내해 ᄃᆞ리 업도다

哀彼遠征人去家死路傍不及父祖塋纍纍

冢相當 슬프다 뎌 머리 征伐 갓ᄂᆞᆫ 사ᄅᆞᆷㅣ 지 블 ᄇᆞ려 디고 긼ᄀᆞᅀᆡ 주거 父祖ㅅ 무덤 뒤

린ᄃᆡ 몯ᄒᆞ고 어흣머흣ᄒᆞ시 무덤미 처르 當ᄒᆞ얏도다

信行遠修木簡

汝性不茹葷清淨僕夫內 네 性ㅣ 내나ᄂᆞᆫ ᄂᆞᄆᆞᄅᆞᆯ 먹디 아니ᄒᆞ

ᄂᆞ니 죵의 서리예 淸淨ᄒᆞ도다 秉心識本源 於事少滯礙 ᄆᆞᄋᆞᆷ
자보ᄆᆞᆯ 근원을 알셔 일ᄒᆞ기예 ᄀᆞ린 거시 뎍도다 雲端水筒拆 林表
山石碎 水筒은 引水之筒ㅣ라 言山石ㅣ碎而觸筒故로 拆也ㅣ니라 구룺 그
테 믈 흘리ᄂᆞᆫ 대筒ㅣ 배디니 수픐 밧긔 뫼햇 돌히 붕어디도다 觸熱藉子修
通流與廚會 더위ᄅᆞᆯ 다ᄃᆞᆯ어 가네 갓고 몰 藉頼ᄒᆞ노니 ᄉᆞᄆᆞᆺ 흘려 브어베 모
다 오게 ᄒᆞ라 往來四十里荒險崖谷大 가며 오미 四十里예
거츨오 險ᄒᆞᆫ 빗 고리 크도다 日曛鷲未飡 貌亦媿相對 媿其
롬之勞也ㅣ라 ○나리 져므록 밥 몯 머거슈믈 놀라노니 양ᄌᆡ 블그니 서르 對ᄒᆞ야

佛붓그ㅣ노라浮瓜供老病裂餅常所愛謂引水浮瓜ᄒᆞ야以供
甫ㅣ의老病ᄒᆞᄂᆞ니甫ㅣ常食餅則裂而給之者ᄂᆞᆫ乃所以愛憐之也ㅣ라○믈에ᄃᆞ몬
외와늘근病ᄒᆞ니ᄅᆞᆯ이받ᄂᆞ니ᄯᅥᆨ버혀주믄샹녜ᄉᆞ랑ᄒᆞᄂᆞᆫ배니라於斯荅恭
謹足以殊殿最下功曰殿ㅣ오上功曰最ㅣ라言常裂餅給之ᄂᆞᆫ所以荅
信行之恭謹而亦以異殿最於諸僕夫之輩也ㅣ라○이ᄯᅥᆨ주므로비의恭謹을對答ᄒᆞ
노니足히ᄡᅥ곰殿最ᄅᆞᆯ다니리ᄒᆞ미니라詎要方士符何假將軍
佩蘇耽ㅣ井無水ㅣ어늘投符井中ᄒᆞᆫ대遂有水ᄒᆞ고貳師將軍ㅣ拔佩刀斫山ᄒᆞᆫ대
泉ㅣ飛出ᄒᆞᄂᆞ니今信行ㅣ能引水故로云ᄒᆞ니라○엇뎨方士의符呪을조오로이너기

며엇뎨將軍의ᄎᆞᆫ갈ᄒᆞᆯ빌리오 行諸直如筆用意崎嶇外 行諸ᄂᆞᆫ郎信行ㅣ라直如筆은言其可用而不邪曲也ㅣ라崎嶇ᄂᆞᆫ不平皃ㅣ라○信行ㅣ모ᄋᆞᆷ고ᄃᆞ며붇ᄀᆞᄐᆞ니며ᄒᆞᆫ뫼밧긔ᄠᅳ들ᄡᅳ놋다

引水

月峽瞿塘雲作頂亂石崢嶸俗無井 月峽과瞿塘애구루미묏ᄀᆞ티ᄃᆞ외얏ᄂᆞ니어즈러운돌히놉고俗人이우므리업도다 雲安沽水奴僕悲魚腹移居心力省 雲安은蜀夔州ᄒᆞ니라謂免取水之勞也ㅣ라○雲安앳믈을사머글서奴僕ㅣ슬터니魚腹애올마사로니ᄆᆞᄋᆞᆷ과히

미더놋다 白帝城西萬竹蟠接筒引水喉不乾 夔俗

:無井ᄒᆞ야皆以竹筒으로引山泉ᄒᆞᄂᆞ니라○白帝城ㅅ西ㅅ녀긔萬竹ㅣ서렛ᄂᆞ니

대롱ᄋᆞᆯ니어므를흘려오니모기ᄆᆞᄅᆞ디아니ᄒᆞ도다 人生留滯生理

難斗水何直百憂寬 人生애머므리쥬매生理ㅣ어려우니ᄒᆞᆫ말만

ᄒᆞᆫ므른엇뎨곧온시르미어윌ᄲᅮᆫㅣ리오

可歎

天上浮雲如白衣須臾改變如蒼狗 此ᄂᆞᆫ比萬事變

態々無常ᄒᆞ다○하ᄂᆞᆯ우희ᄠᅳ구루미힌옷곤더니이니한데고뎌프른가히곤도다

古往今來共一時人生萬事無不有 言古今萬事ㅣ皆如一日之事也ㅣ라○녜디나가며이제오매다몯ᄒᆞᆫ삐로ᄃᆞ니ㅅ生애萬事ㅣ잇디아니ᄒᆞᆫ거시업도다

近者抉眼去其夫河東兒女身姓柳 抉眼은如抉去眼中之物ㅣ니言其速也ㅣ라○요주ᅀᅳᆷ누넷가싀아아니ᄇᆞ리ᄃᆞ시그사옹을벙스리와ᄃᆞ니河東ㅅ져ᄅᆞᆫ겨지비모맷姓ㅣ柳개니라

文夫正色動引經酆城客子王季友 文夫ᄂᆞᆫ即季友ㅣ라○文夫ᄂᆞᆫ文비ㅣ츨正히ᄒᆞ야뮈유메經術을혀ᄂᆞ니酆城ㅅ나그내王季友ㅣ니라

羣書萬卷常暗誦孝經一通看在手 下句ᄂᆞᆫ言其孝友之義也ㅣ라○뭇

글월萬卷을長常외오고孝經 ᄒᆞᆫ通올손에가져셔보ᄂᆞ니라 貧窮老瘦家

賣𥟍好事就之為携酒 貧窮ᄒᆞ고늙고여위 여지븨셔시ᄂᆞᆯ프러

든일즐길사ᄅᆞ미니아ㅣ 되為ᄒᆞ야수를가지놋다 豫章太守高帝孫

引為賓客敬頗久 言李勉ㅣ引李友為賓客 而敬待之也ㅣ라○豫章

貧은高帝ㅅ孫子ㅣ니허다가손 사ᄆᆞ嚴敬ᄒᆞ믈ᄌᆞ모오래ᄒᆞ니라 聞道三年

未曾語小心恐懼閉其口 니르거늘드로니 三年을일즉말아니

니ᄒᆞ고ᄆᆞᄋᆞᆷ져기ᄒᆞ야 저허그이블다ᄃᆞ니라 太守得之更不疑

人生反覆看亦醜 言李友ㅣ見愛於李公而 見棄於其妻ᄒᆞ니可見人

生萬事의反覆之醜惡也ㅣ라○負ᄂᆞᆫ어긔다가ᄯᅩ鬆心아니ᄒᆞ야놀人生애두위힐후믈보니ᄯᅩ더럽도다

明月無瑕豈容易紫氣鬱鬱猶衝斗

言季友ㅣ如明珠ㅣ며其逸氣ᄂᆞᆫ如劍氣之衝斗也ㅣ라○明月珠ㅣ허믈업스니를어느수이어드리오블근氣運ㅣ鬱ᄒᆞ야오히려斗牛애다ᄃᆞᆯ엇도다

鬱時危

可仗眞豪後二人得置君側否

二人은指李太守오李友也ㅣ라○時節ㅣ危亂ᄒᆞᆫ제그可치眞實ㅅ豪後을보ᄅᆞᆯ디니두사ᄅᆞᆷ은시러곰님굼겨틔둘가몯ᄒᆞᆯ가

太守頃者領山南邦人思之比父母

太守ᄂᆞᆫ即李勉ㅣ라○太守ㅣ이주음의山南을領ᄒᆞ니ᄀᆞ올사ᄅᆞ미思慕ᄒᆞ야父母ᄀᆞ

티니기더라 王生早曾拜顔色高山之外皆培塿
培塿ᄂᆞᆫ小土山也ㅣ라言王生之拜太守ㅣ仰如高山ᄒᆞ니其餘人ㅣ眞若小山也ㅣ라○이
王生ㅣ일일즉顔色을뎔ᄒᆞ니노ᄑᆞᆫ묏밧근다효근뫼히로다 用爲羲和天
爲成用平水土地爲厚 羲氏和氏ᄂᆞᆫ主曆象之官者ㅣ라○이사
ᄅᆞᄆᆞᆯᄡᅥ羲和ᄅᆞᆯᄒᆡ면하ᄂᆞᆯ히爲ᄒᆞ야일오배水土ᄅᆞᆯ平ᄒᆡ오면ᄯᅡ히爲ᄒᆞ야둗거오리로
다 王也論道阻江湖李也疑丞曠前後 言季友ㅣ
可以論道經邦而今則阻滯於江湖ㅣ오李勉오可爲疑丞之任而天子入前後에曠闕
其位也ㅣ라○王也ᄂᆞᆫ道理ᄅᆞᆯ議論ᄒᆞ리어ᄂᆞᆯ江湖애벙으러잇고李也ᄂᆞᆫ前疑後丞ㅅ

벼슬홀디어늘 앏뒤히뒤엿도다 死爲星辰終不滅致君堯舜焉肯朽주그면星辰ㅣᄃᆞ외야ᄆᆞᄎᆞᆷ애업디아니ᄒᆞ리니님금을堯舜에니르위리어니 엇데서그리오 吾輩碌碌飽飯行風后力牧長回首風后力牧은皆黃帝ㅅ良臣ㅣ니以王李二人으로期望風后力牧也ㅣ라○우리무른ᄇᆡᄉᆞ차밥비브르먹고녀도니노니風后와力牧애기리머리롤도라ᄇᆞ라노라

火

楚山經月火大旱則斯舉楚ㅅ뫼해ᄒᆞᆫᄃᆞ리디나도록블브티

ᄂᆞ니 큰 ᄀᆞᄆᆞ리어든 이 돌ᄃᆞ려 ᄒᆞᄂᆞ니라 이 舊俗燒蛟龍驚惶致

雷雨 녯風俗ㅣ蛟龍ᄋᆞᆯ ᄉᆞ라 놀래이 雷雨ᄅᆞᆯ 닐위ᄂᆞ니라 爆嵌魑魅泣

崩凍嵐陰昈 昈ᄂᆞᆫ 音戶ㅣ니 日光ㅣ라 言火ㅣ爆嵌巖而山鬼ㅣ驚哭ㅣ오 氷

凍之處ㅣ爲火의所崩落而嵐陰ㅣ爲之明也ㅣ라○바횟 굼긔 ᄠᅴ니 魑魅ㅣ 울오 언 ᄯᅡ

히 므르드르니 ᄉᆞ 어드운 ᄃᆡ 붉도다 雲嵐 羅落沸百泓根源皆萬

古 言焚山求雨ㅣ自古如此ㅣ니라○버러 드러온 므리 봄피ᄂᆞ니 根源은 다 萬古로

브터로다 青林一灰燼雲氣無處所 言雲氣無所止泊也ㅣ라

○프른 수프리 ᄒᆞᆫ골ᄋᆞ티 ᄌᆡ ᄃᆞ외니 구룸 氣運ㅣ 브터 ᄉᆞᆯ ᄯᅡ히 업도다 入夜殊

赫然新秋照牛女바ᄆᆡ드러ᄆᆞ잔赫然ᄒᆞ니새ᄀᆞᅀᆞᆯ히牛女ㅅ벼리비
취엿도다風吹巨焰作河棹騰烟柱烟柱ᄂᆞᆫ烟氣ㅣ如柱ㅣ니
言河中之棹애烟柱ㅣ騰及也ㅣ라○ᄇᆞᄅᆞ미부러큰블비치너ᄅᆞ와ᄂᆞᄆᆞᄅᆞ매가ᄂᆞᆫ
비취ᄂᆞᆺ기디ᄂᆞᆺ다勢欲焚崑崙光彌焮洲渚양ᄌᆞᄂᆞᆫ崑崙山
올ᄇᆞ릴ᄃᆞᆺᄒᆞ고비촌ᄃᆡ옥믌ᄆᆞᄋᆡ뗘엿도다腥至焦長蛇聲吼纏
猛虎비린내니르러오니긴ᄇᆡ야미블븓고소리우르니모딘범ㅣ브레버므렷도
다神物已高飛不見石與土神物ᄋᆞᆫ指龍也ㅣ라○神物ㅣ
ᄒᆞ마노피ᄂᆞ니돌과ᄒᆞᆰᄀᆞᆯ보디몯ᄒᆞ리로다爾寧要謗讟憑此近

熒侮 熒侮ᄂᆞᆫ猶威侮ㅣ라言爲此擧者ㅣ不唯要謗讟ㅣ라亦近乎瀆侮鬼神也ㅣ니
니라 ○ 네 ᄎᆞᆺ메 ᄂᆞᄆᆡ 구숑호믈 要求티 아니ᄒᆞ리로 이ᄅᆞᆯ 므ᄃᆡ호미 므던히 너교ᄆᆡ 갓갑도다
薄關長吏憂 甚昧至精主 言火ㅣ薄近郭關而長吏ㅣ憂其火燄ㅣ延及ᄒᆞᄂᆞ니 精識ㅣ上格ᄒᆞ야 以祈雲雨ㅣ어ᄂᆞᆯ 擧火ᄒᆞ니 豈不昧至精之理리오 ○ 關에 미처오니 長吏 시름ᄒᆞᄂᆞ니 至極ᄒᆞᆫ 精識ㅣ 옷드믄 고ᄃᆞᆯ 甚히 아ᄃᆞ기 므ᄅᆞᄂᆞᆺ다
遠遷誰撲滅 將恐及環堵 環堵ᄂᆞᆫ 져근 지비니 言延及甫之家也ㅣ라 ○ 머리 올마가매 뉘텨ᄢᅥᄇᆞ리오 내 기븨 미처 올가 將次ㅅ 젼노라
流汗臥江亭 更深氣如縷 ᄯᆞᆷ 흘리고 ᄀᆞᄅᆞᆷᄋᆞᆺ 亭子애 누어 이슈니 更點

ㅣ 기프니 氣運ㅣ 실ᄃᆞᆺ 곤도다

曲江三章章五句

曲江蕭條秋氣高菱荷枯折隨風濤遊子空嗟垂二毛 曲江ㅣ 蕭條ᄒᆞ고 ᄀᆞᅀᆞᆳ 氣運ㅣ 노ᄑᆞ니 말왐과 蓮ㅅ고지 이우러 것거뎌 ᄇᆞᄅᆞ맷 믌겨를 좃ᄂᆞ니 노니ᄂᆞᆫ 子ㅣ ᄒᆞᆫ갓 두 터리 드려슈믈 슬노라

白石素沙亦相蕩哀鴻獨叫求其曹 ᄒᆡᆫ 돌과 ᄒᆡᆫ 몰애 作서르 헤여 뎃ᄂᆞ니 슬픈 그려기 ᄒᆞ오아 우러셔 제 무를 얻ᄂᆞ도다

即事非今亦非古長歌激越捎林莽比屋豪

華固難數 即事ᄂᆞᆫ即目前所見曲江之事ㅣ니非今ᄋᆞᆫ日之蕭條與昔日之豪華ㅣ

手아昔日方盛宴會之時예歌聲ㅣ激越ᄒᆞ야捎動林莽也ㅣ러니라○곧이ᄅᆞᆫ이젓이

리아니며녯이리아니가긴노랫소리激越ᄒᆞ야수플ᄀᆞ리텨가더니니은지븨豪

華호믈여뭇혜요미어렵더니라 吾人甘作心似灰弟姪何

傷淚如雨 甫ㅣ言年今老矣라萬事ㅣ已無心而惟恨弟姪之分離而已라

○나ᄂᆞᆫᄆᆞᅀᆞ미ᄌᆡᄀᆞᆮᄃᆞ외요ᄆᆞᆯᄃᆞᆯ히너기거시니아ᅀᆞ와아ᄎᆞᆫ아ᄃᆞᄅᆞᆯ므슴슬허ᄂᆞᆫ므

를비ᄀᆞ티흘리거니오

自斷此生休問天杜曲幸有桑麻田故將移

往南山邊 杜曲ᄋᆞ地名ㅣ니在長安ᄒᆞ다○이ᄉᆞᆯ을내ᄯᅢ斷ᄒᆞᆯ디라하歛저든
더말롤디니杜曲애幸허桑麻ㅅ바티인ᄂᆞ
니부러移次ㅅ南山ㅅᄀᆞ애올마가이슈리
라
短衣匹馬隨李廣看射猛虎終殘年 漢人李廣
ㅣ居藍田南山中ᄒᆞ야射獵ᄒᆞ니라○뎌른
옷과ᄒᆞᆫ ᄆᆞᆯ로李廣올조차모딘버믜소ᄂᆞᆯ보와
ᄒᆡ衰殘ᄒᆞᆫ나
ᄒᆞᆯ ᄆᆞᄎᆞ리라

三韻三篇

高馬勿捶面長魚無損鱗 노픈ᄆᆞᄅᆞᆯᄂᆞᄎᆞᆯ티
디말며긘고기롤
비ᄂᆞᆯ ᄒᆞ야ᄇᆞ리
디말라
辱馬馬毛焦困魚魚有神 辱ᄒᆞᆫ ᄆᆞᄅᆞᆫ

면몯더리고ᄉᆞ며오고기몰囙히 君看磊落
오면고기神異ᄒᆞ며잇ᄂᆞ니라
士不肯易其身 此首ᄂᆞᆫ言志高之士ᄂᆞᆫ不可輕蔑也ㅣ라○그듸ᄂᆞᆫ磊落
ᄒᆞᆫ사ᄅᆞᄆᆞᆯ보라제몸輕易히
호몰즐기디아니ᄒᆞᄂᆞ니라
蕩蕩萬斛船影若搖白虹起橋必推千掛席
集衆功 蕩蕩ᄋᆞᆫ廣大也ㅣ라推ᄂᆞᆫ所以享衆功也ㅣ라○큰萬斛실ᄂᆞᆫ배ᄂᆞᆫ그르메
ᄒᆞᆫ므지개이이ᄂᆞᆫ돗ᄒᆞ니ᄂᆞᆫ裂대ᄃᆞᆯ제반ᄃᆞ
시효롤더주겨어받고돗ᄃᆞᆯ제모ᄃᆞᆫ功올뫼ᄃᆞ
호ᄂᆞ니라 自非風動天莫置大水中 此首ᄂᆞᆫ言大才ᄂᆞᆫ家可大
用也ㅣ라○수ᅀᅵ로ᄇᆞᄅᆞ미하ᄂᆞᆯᄒᆞᆯ뮈오ᄂᆞᆫ
져기아니면큰믈가온대두디몯ᄒᆞᄂᆞ니라

烈士惡多門 小人自同調 多門은言其出於不一이라 同調는黨音ㅣ同也ㅣ言小人ㅣ黨同志ㅣ라○烈士는門하몰아니ᄒ고小人ᄋᆞᆫ스ᄉᆞ로ᄆᆞᅀᆞ미ᄒᆞᆫ가지니라

名利苟可取 殺身傷權要 名利를진실로可히어들거시면모매주글倂니언뎡權要를블ᄂ니라

何當官曹淸 爾輩堪一笑 此首ㅣ는譏趨附權執ᄒ야以致名位者也ㅣ라○어느저기마ᄋᆞ리ᄆᆞᆯ고뇨너희믈은ᄒᆞᆫ번우ᅀᅮᆷ즉ᄒᆞ도다

示獠奴阿段 獠는夷種ㅣ라

山木蒼蒼落日曛 竹竿裊裊細泉分 謂接筒引水也

ㅣ라○뫼해 남기 퍼러ᄒᆞ고 디ᄂᆞᆫ 히 어듭ᄂᆞ
니 몃 낫 치움 즈ᅀᅵ니ᄆᆞᄂᆞᆫ 섬 올ᄂᆞᆫ 화 흘리ᄂᆞᆺ
다郡人入夜爭餘瀝 稚子尋源獨不聞稚子ᄂᆞᆫ指
阿段ᄒᆞ다 謂尋水源而引水ᄒᆞ니 不聞其去
處也ㅣ라○ᄀᆞ옰 사ᄅᆞ미 바ᄆᆡ 드러 나ᄆᆞᆫ ᄠᅳ
듣ᄂᆞᆫ 므를 ᄃᆞ토ᄂᆞ니 져믄 아ᄒᆡ 믌 츨홀
ᄎᆞ자 가리 ᄒᆞ올로 듣디 몯ᄒᆞ리로다 病渴
三更回白首 傳聲一注濕青雲목ᄆᆞᄅᆞᆫ病ᄒᆞ야 三更에 셴
머리를 횟도라 ᄇᆞ라다니 소리 傳ᄒᆞ야 ᄒᆞᆫ 브
어 흘려오ᄂᆞᆫ 거시 ᄑᆞᄅᆞᆫ 구룸 므를 저지ᄂᆞᆺ다
曾驚陶偘胡奴異 怪爾常穿虎豹群陶偘ᄋᆡ 되죵ᄋᆡ
奇異호ᄆᆞᆯ 일즉 놀라더니 네 長常 虎豹
ᄋᆡ 무를 들위 ᄃᆞᆫ뇨ᄆᆞᆯ 怪異히 너기노라

白露

白露團甘子清晨散馬蹄 團은露凝皃ㅣ라 散馬蹄ᄂᆞᆫ之馬歸
ᄇᆞᆷ圃𢘿ㅣ라○ᄒᆡᆫ이스리甘子에도라 오니ᄆᆞᆯ고새배ᄆᆞᆯ바ᄅᆞᆯᄒᆞ러ᄃᆞ리노라 圃開
連石樹船渡入江溪 圃ᄅᆞᆯ여니돌콰남고니 엣ᄂᆞ니ᄇᆡ로건나ᄀᆞᄅᆞᆷ
과시내로 드로라 憑几看魚樂回鞭急鳥棲 棲几ᄅᆞᆯ비 ᄒᆞ겨셔고
기의즐규믈보고채ᄅᆞᆯ횟돌라 새기기세들어놀ᄲᆞᆯ리오노라 漸知秋實美
幽徑恐多蹊 多蹊ᄂᆞᆫ甘子ᄅᆞᆯ일버어ᄇᆞ노라 ᄇᆞᆯᄒᆞᆯ헤ᄇᆞᆯ올시라○ᄀᆞᅀᆞᆳ여르
미됴ᄒᆞ믈漸漸아노니幽深 ᄒᆞᆫ길헤해길낼가전노라

、擣衣

亦知戍不返秋至拭清砧言婦人ㅣ知其夫之戍邊而不返故로欲擣衣而寄之니라○任防戍ᄒᆞ리도라오디몯호ᄆᆞᆯ아라ᄆᆞᄋᆞᆯ히니르거놀몯ᄀᆞ방하ᄅᆞᆯ슷놋다

已近苦寒月況經長別心ᄒᆞ마심히치운ᄃᆞ리갓갑거늘아ᄒᆞ몰며기리여희엿ᄂᆞᆫᄆᆞᅀᆞᆷ올디내오미ᄯᆞ녀

寧辭擣衣倦一寄塞垣深塞垣ᄋᆞᆫ邊城也ㅣ라○옷디호ᄆᆞᆯᄀᆞᆺᄇᆞ다엇디말리오塞垣ㅣ기픈ᄃᆡᄒᆞᆫ번브텨보내오져ᄒᆞ놋다

用盡閨中力君聽空外音言擣衣砧聲ㅣ聞于空外也ㅣ라○閨中엣히믈다ᄡᅳ노니그듸ᄂᆞᆫ虛空밧긔소리ᄅᆞᆯ드르라

少年行二首

莫笑田家老瓦盆自從盛酒長兒孫 녀름짓는지빗늘근디새盆올웃디말라술다마머구므로브터子孫ㅣᄌᆞ라거다

傾銀注玉驚人眼共醉終同卧竹根 豪貴少年ㅣ以銀玉爲酒器ᄒᆞ야使人驚玩ᄒᆞ나與田家瓦盆者로終同醉卧耳니라◐銀을기우리며玉으로브어사ᄅᆞ미누늘놀래언마ᄂᆞᆫ다ᄆᆞᆺ醉ᄒᆞ야댓불희예누워쇼ᄆᆞᄆᆞᄎᆞ매ᄒᆞᆫ가지니라

巢燕養雛渾去盡江花結子已無多 기셋져비샷기쳐다나가모ᄎᆞ니ᄆᆞᄅᆞ맷고ᄌᆞᆫ여름미ᄌᆞᆫ거시ᄒᆞ마하디아니ᄒᆞ도다

黃衫年

少來宜數不見堂前東逝波 日月之速ㅣ如東逝之水ᄒᆞ니言行樂ᄋᆞᆯ當及時也ㅣ니라○黃柈니븐나져믄사ᄅᆞᆷᄋᆞᆫ오ᄆᆞᆯ ᄌᆞ조ᄒᆞ미맛당ᄒᆞ니堂알ᄑᆡ東ᄋᆞ로가ᄂᆞᆫ믌겨ᄅᆞᆯ보디아니ᄒᆞᄂᆞ다

少年行

馬上誰家白面郎臨階下馬坐人床 ᄆᆞᆯ우희뉘짓ᄂᆞᆾ흰郎고階砌ᄅᆞᆯ디러ᄆᆞᆯ브려사ᄅᆞᄆᆡ床애앗ᄂᆞ다

不通姓字麤豪甚指點銀甁索酒嘗 姓字ᄅᆞᆯ니ᄅᆞ지아니ᄒᆞ야멀터우미甚ᄒᆞ니銀甁을ᄀᆞᄅᆞ쳐수를ᄃᆞᆯ라ᄒᆞ야먹ᄂᆞ다

絶句六首

日出籬東水雲生舍北泥 ᄒᆡᄂᆞᆫ 울東녁 므레 ᄯᅥ돗고 구루믄 집北녁 ᄒᆞᆯᄀᆡ셔 나놋다

竹高鳴翡翠沙僻舞鵾鷄 ᄃᆡ 노ᄑᆞ니 翡翠ㅣ 울오 몰애 幽僻ᄒᆞ니 鵾鷄 춤츠놋다

藹藹花蘂亂飛飛蜂蝶多 藹藹ᄂᆞᆫ 盛也ㅣ라 ○ 藹藹ᄒᆞᆫ 곳부리 어즈럽고 飛飛ᄒᆞᄂᆞᆫ 버리와 나뵈왜 하도다

幽棲身懶動客至欲如何 幽深히 사로매 몸 뮈유믈 게을ㅣ ᄒᆞ노니 소니 오거든 엇디ᄒᆞ려뇨

急雨捎溪足斜暉轉樹腰 ᄲᆞᄅᆞᆫ 비ᄂᆞᆫ 시내 발로 ᄆᆞ리텨 가고 빗

긴힛비ᄂᆞᆫ나못히리로올마가놋다偏巢黃鳥並 翻藻白魚跳 기슬즈움처누른새골와안잣고말와매두위이저힌고기뛰놋다

鑿井交椶葉 開渠斷竹根 以椶葉으로交數於井底ᄒᆞ야以障泥土ᄒᆞ니取水之易清也ㅣ니라○우므를ᄑᆞ고椶나못니플서르ᄭᅥᆯ오渠롤어루리라ᄒᆞ야댓불휘롤굿노라

扁舟輕裊纜 小徑曲通村 져근비예보ᄃᆞ라온주리가비야오니져근길흔곱구뤼여ᄆᆞ올히ᄉᆞᄆᆞ찻도다

舍下筍穿壁 庭中藤刺簷 집아래竹筍ㅣᄇᆞᄅᆞᄆᆞᆯ들웻고ᄠᅳᆯ가온ᄃᆡ藤ㅣ집기슬글뻘엇도다

地晴絲冉冉 江白草纖纖 絲ᄂᆞᆫ

遊絲也ㅣ라 ◐ 대히 개니 노ᄂᆞᆫ 시리 어른ᄒᆞ고 ᄀᆞᄅᆞ미 히ᄂᆞ니 ᄠᅳ리 ᄀᆞᄂᆞ랏도다

江動月移石 溪虛雲傍花 ᄀᆞᄅᆞ미 뮈니 ᄃᆞᆳ비치 돌해 옮고 시내히 뷔니 구루미 고지 바랏도다

鳥棲知故道 帆過宿誰家 새 기세 녯길ᄒᆞᆯ 아라 보ᄂᆞ니 빗돗기 지나가 뉘 지븨 자려뇨

絶句四首

堂西長筍別開門 塹北行椒卻背村 집 西ㅅ 녀크 竹筍 길우노라 門을 다ᄅᆞᆫ 뒤로 여로니 구ᇝ 北녀크 비렷ᄂᆞᆫ 椒木ᄋᆞᆫ 도로 ᄆᆞᄋᆞᆯ홀 졋도다

梅熟許同朱老喫 松高擬對阮生論 甫ㅣ 自註 朱阮

온劍外相知라○梅ㅣ 빅거든 朱老와 ᄒᆞᆫ되 셔머 그리롤 許ᄒᆞ고 소남기 놉거든 阮生과

對ᄒᆞ야 付議論ᄒᆞ고져 너기노라

欲作魚梁雲覆湍 因驚四月雨聲寒 魚梁오 劈竹積

石ᄒᆞ야 橫截中流ᄒᆞ야 聚魚之區也ㅣ라○구룸 두펏ᄂᆞᆫ 므레 魚梁을 밍ᄀᆞ로져 ᄒᆞ다가

四月에 빗소리 서ᄂᆞᆯ호몰 因ᄒᆞ야 놀라롸

青溪先有蛟龍窟 竹石

如山不敢安 프른 시내헤 몬져 蛟龍의 굼기 잇ᄂᆞ니 돌과 나모왜 뫼ᄀᆞ티샤

하도 구틔여 便安티 몯ᄒᆞ리로다

兩箇黃鸝鳴翠柳 一行白鷺上青天 두낫 곳고리ᄂᆞᆫ

프른 버드레셔 우르고 ᄒᆞᆫ 줈 하야로빈 프른 하ᄂᆞᆯ해 오ᄅᆞ놋다

窓含西嶺千秋雪門泊東吳萬里船 窓은 西嶺에 즈믄 ᄒᆡᆺ 누늘 머겟고 문엔 東吳ㅅ 萬里옛 ᄇᆡ 브텃도다

欒條欒甲潤青青色過椶亭入草亭 欒가지와 欒거플왜 저저 퍼러ᄒᆞ니 비치 椶나모 亭子로 디나 草亭에 도랏도다

苗滿空山懃取譽根居隙地惻成形 凡欒ㅣ如鳥獸形者ㅣ爲良ᄒᆞ니라 言今種欒ㅣ滿山ᄒᆞ니媿人의以養欒으로爲譽而欒之在隙地者ㅣ欲成物形ᄒᆞ니又怯人之易見也ㅣ라○어미 뵌 뫼헤 ᄆᆞ독ᄒᆞ니 기룸 어두믈 붓그리고 불휘 뵌 ᄯᅡ해 사라

시니얼구리일가전노라

漫成一首

江月去人只數尺風燈照夜欲三更 ᄀᆞᄅᆞ매돖비츤

사ᄅᆞᄆᆡ게벙으로미오직두어재히오ᄇᆞᄅᆞ맷브른바미비취니三更ㅣ도외오져ᄒᆞ노다

沙頭宿鷺聯拳靜船尾跳魚撥刺鳴 撥刺ᄂᆞᆫ音

鉢韓ㅣ니躍而有聲也ㅣ라 ○ 몰랫그테자ᄂᆞᆫ하야로비ᄂᆞᆫ니어발쥐여ᄀᆞ마니잇고빗

그테ᄠᅳ노ᄂᆞᆫ고기ᄂᆞᆫ撥刺히우ᄂᆞ다

絶句三首

聞道巴山裡春船正好行 니르거늘드르니巴山안해봆ᄇᆡ正히됴히녀ᄂᆞ다

都將百年興一望九江城 百年옛즐거운ᄆᆞᅀᆞᄆᆞᆯ다가져셔九江城을ᄒᆞᆫ번ᄇᆞ라노라

水檻溫江口茆堂石筍西 믈옛欄檻ᄋᆞᆫ溫江ㅅ이피오새지븐石筍ㅅ西ㅅ녀기로다

移船先主廟洗藥浣花溪 先主ㅅ廟애ᄇᆡ를올기고浣花ㅅ시내해藥ᄋᆞᆯ싯ᄂᆞ다

謾道春來好狂風大放顚 봄오매됴타쇽절업시니ᄅᆞᄂᆞ다어러운ᄇᆞᄅᆞ미키업듯게부ᄂᆞ다

吹花隨水去翻却釣魚船 고줄

부려믈조차가게ᄒᆞ고고 기낛논비롤두워치놋다

答鄭十七郎一絕

雨後過畦潤花殘步屐遲 비온後에디나오 논밤이러미뎌조 니고지衰殘ᄒᆞᆫ뎌격지 신고거로믈더듸호라 把文驚小陸好客見當時 陸雲ㅣ爲小陸ㅣ니文章ㅣ名世ᄒᆞ니 라鄭莊의字ㅣ當時니好賓客ᄒᆞ더니以 二人으로比鄭郎ᄒᆞ다○그를자바셔小陸 을늘래고손ᄉᆞ랑호ᄆᆞᆯ當時를보노라

三絕句

楸樹馨香倚釣磯斬新花蘂未應飛 ᄀᆞ래남 기곳다

와고기낛ᄂᆞᆫ돌해지엿ᄂᆞ니ᄆᆞᄌᆞᆷ새ᄅᆞ원곳부리ᄂᆞᆫ나로미맛당티아니ᄒᆞ도다 不
如醉裡風吹盡可忍醒時雨打稀 술醉ᄒᆞ얏거든ᄇᆞᄅᆞᆷ부리盡흠만ᄆᆞᄐᆞ니업스니ᄭᆡᆫ時節에비터드ᄅᆞ러가믈可히ᄎᆞ마리아
門外鸕鶿久不來沙頭忽見眼相猜 門밧긔가마오디오래오디아니ᄒᆞ더니모랫그테믄득보고누네서르아텨려ᄒᆞᄂᆞ다 自今已
後知人意一日須來一百迴 이제로브터後에사ᄅᆞ미ᄠᆞ들알란디ᄒᆞ롯날모로매오더一百디위옴ᄒᆞ라
無數春筍滿林生柴門密掩斷人行 數업시봆竹筍

ㅣ수프레 ᄆᆞᄃᆞ기 나거늘 柴門을 秘密히 다도니 사ᄅᆞᆷ녀미 ᄀᆞᆺ도다

會須上番看成竹 客至從嗔不出迎 番은 去聲ㅣ니 上番은 乃蜀人語ㅣ니라 ○ 모로매 上番에 대 일어든 보리라 ᄒᆞ야 소니 오나도 믜요ᄆᆞᆯ 므던히 너기고 나 迎逢 아니ᄒᆞ노라

解悶 二首

草閣柴扉星散居 浪翻江黑雨飛初 새집과 살벼기 門ㅣ 별 흗ᄃᆞ시 사ᄂᆞ니 믌겨리 두의잇고 山ᄆᆞᄅᆞ미 어듭고 비 ᄂᆞᆯ이ᄂᆞᆫ 처엄ㅣ로디

翁引子哺紅果 溪女得錢留白魚 뫼햇새ᄂᆞᆫ 삿기ᄅᆞᆯ 혀

블근 果實을 머기고 시내헤 겨지븐 돈 반고 흰 고기를 주ᄂᆞ다

商胡離別下揚州憶上西陵故驛樓 흥졍ᄒᆞᄂᆞᆫ 되 어희오 揚州로 ᄂᆞ려가ᄂᆞ니 西陵 녯 驛樓에 올오몰 ᄉᆞ랑ᄒᆞ노라

為問淮南米貴賤老夫乘興欲東遊 淮南애 ᄡᆞᆯ 貴ᄒᆞ며 賤호ᄆᆞᆯ 為ᄒᆞ야 묻노니 늘근 노미 興心을 다 東으로 가 놀오져 ᄒᆞ노라

復愁十一首

人烟生處僻虎迹過新蹄 사ᄅᆞ미 나ᄂᆞᆫ ᄯᅡ히 幽僻ᄒᆞ니 버미 자최ᄂᆞᆫ 새 바리 디나도다

野鶻翻窺草村船逆上溪 ᄆᆡ햇 매ᄂᆞᆫ

으니 調氣ㅣ 훤히 縱橫ᄒᆞ도다 兩章對秋月 一字偕華星 此논
言詞語淸麗而筆迹ㅣ光輝也ㅣ라○두 글워리 ᄀᆞᅀᆞᆳ ᄃᆞᄅᆞᆯ 對ᄒᆞᆫᄃᆞᆺᄒᆞ고 ᄒᆞᆫ 字도 빗난 별
와 ᄀᆞᆮ도다 致君唐虞際 純朴憶大庭 言道州ㅣ欲致君爲堯舜
而使民風으로 淳朴ㅣ如大庭氏也ㅣ라○님그믈 唐虞ㅅ ᄀᆞ애 니르위리로소니 純朴
ᄒᆞᆫ 大庭 저글 ᄉᆞ랑ᄒᆞᄂᆞᆺ다 何時降璽書 用爾爲丹青 謂以璽書
徵用道州也ㅣ라 丹青은 粉澤治化ㅣ라 一로 云圖像示人也ㅣ라○어느 제 天子ㅅ 印
ᄐᆡᆼ 글워ᄅᆞᆯ ᄂᆞ리와 너를 ᄡᅥ 丹青ᄒᆞ려뇨 獄訟久衰息 豈唯偃甲
兵 言道州之治ᄂᆞᆫ 非但偃武ㅣ라 又無爭訟也ㅣ라○獄訟ㅣ 衰殘ᄒᆞ야 그츄미 오라

니엇디오직甲兵을
기우리혈俾니료 慷慨念誅求薄斂近休

明 ○道州之治ㅣ近乎三代休明之時也ㅣ라
슬히百姓ㅣ의게誅求호믈思念ᄒᆞ니賦

斂을져기호미休
明에갓갑도다 乃知正人意不苟飛長纓

長纓은冠冕之飾ㅣ니言元結ㅣ不苟慕功
名也ㅣ라○正ᄒᆞᆫ사ᄅᆞᄆᆡᄠᅳ든긴긴홀놀요

몯苟且히아니
호믈알와라 凉飈震南岳之子寵若驚 上句

ᄂᆞᆫ喩其高風ᄒᆞ고下句ᄂᆞᆫ言居寵思危ᄒᆞ니
之子ᄂᆞᆫ指元結ᄒᆞ다○서늘ᄒᆞᆫᄇᆞᄅᆞ미南岳

을뮈우ᄂᆞ니이소니
寵에놀라ᄂᆞᆫ듯ᄒᆞ도다 榮色沮金印大興含滄

溟淸 元結詩예有棄官刺船之語ᄒᆞ다言寵
受金印之大而顏色ㅣ沮喪不矜ᄒᆞ니

可見其不苟功名之心ㅣ로다○ᄂᆞᆺ비ᄎᆞᆫ金印ㅣ쿠매沮喪ᄒᆞ고興心ᄋᆞᆫ滄滇ㅣ몯고몯머겟도다

我多長卿病日夕思朝廷長卿은司馬相如의字ㅣ니有消渴病ᄒᆞ니라○나ᄂᆞᆫ長卿의病ᄒᆞ니日夕에朝廷을ᄉᆞ랑ᄒᆞ노라

肺枯渴太甚漂泊公孫城肺肝ㅣ이우러消渴ㅣ키甚ᄒᆞ니公孫의城에브텃노라

呼兒具紙筆隱几臨軒楹아ᄒᆡ블러죠히와부들ᄀᆞ초ᄒᆞ고几를비겨軒楹온臨호라

作詩呻吟內墨淡字欹傾病ᄒᆞ야음주리ᄂᆞᆫ안해그를지우니머기흐리고字ㅣ기우도다

感彼危苦詞庶幾知者聽言甫ㅣ感道애의危苦之辭而作此詩ᄒᆞ야冀知我者ㅣ

聽之也ㅣ라○뎌의危苦ᄒᆞᆫ말ᄉᆞᆷ
을感動ᄒᆞ노니거의알리드르라

春陵行幷序　元結次山

癸卯歲예漫叟ㅣ授道州刺史ᄒᆞ니道州
ᄂᆞᆫ舊四萬餘户ㅣ러니經賊已來예不滿
四千더ㅣ로大半ㅣ不勝賦稅ᄒᆞ더라到官ㅣ
未五十日에承諸使의徵求符牒二百
餘封ᄒᆞ니皆曰失其限者ᄂᆞᆫ罪至貶削이라
ᄒᆞ니於戲라若悉應其命則州縣ㅣ破亂

巫山앤오히려錦곧ᄒᆞᆫ남기오南國엔任꼿고리우놋다

病減詩仍拙吟多意有餘 病ㅣ더니그리지즈로疎拙ᄒᆞ고이프믈해ᄒᆞ니ᄠᅳ디하도다

莫看江總老猶被賞時魚 謂江總ㅣ仕陳得賞ᄒᆞ야晩猶在ᄒᆞ니不如甫의流落也ㅣ니라○江總늘근소니오히려褒賞ᄒᆞᆯ젯銀魚니부믈보디아니ᄒᆞ논다

乾元中寓居同谷縣作歌七首

有客有客字子美白頭亂髮垂過耳 나그내나그내字ㅣ子美니센머리예어즈러운터리드리여귀예디낫도다

歲拾橡栗隨

狙公天寒日暮山谷裡 狙ᄂᆞᆫ猿屬ㅣ니食橡栗ᄒᆞᄂᆞ니라○ᄒᆡ마
다도톨왐주으믈나블조차ᄃᆞᆫ뇨니하ᄂᆞᆯ히칩고ᄒᆡ졈근뫼ᄭᅩᆯ소기로다 中原無
書歸不得手脚凍皴皮肉死 皴ᄋᆞᆫ七倫反ᄒᆞ니皮拆ᄋᆞᆫ裂也ㅣ
라○中原에音書ㅣ업서도라가몯得디몯ᄒᆞ니손바리어러ᄩᅳ고갓과ᄉᆞᆯ쾌주게라
嗚呼一歌兮歌已哀悲風爲我從天來 슬프다첫
노래블로매노래ᄒᆞ마슬프니슬픈ᄇᆞᄅᆞ미날爲ᄒᆞ야하ᄂᆞᆯ로브터오ᄂᆞ다
長鑱長鑱白木柄我生托子以爲命 鑱ᄋᆞᆫ이젯삽마
ᄐᆞᆫ거시라以爲命ᄋᆞᆫ長鑱ᄋᆞᆯ디퍼ᄃᆞᆫ녀모ᄆᆞᆯ가ᄌᆞ실시라○긴鑱긴鑱ㅣ여힌나모ᄌᆞᆯ리

니 내 너를 브터 배 목수믈 삼노리

黃精無苗山雪盛短衣數挽不掩脛

黃精草ㅣ 어미 업고 뫼헤 누니 하니 뎌른 오ᄉᆞᆯ ᄌᆞ조 자바 ᄃᆞᆼ이요니 허틔롤 ᄀᆞ리오디 몯ᄒᆞ리로다

此時與子空歸來男呻女吟四壁靜

呻吟ᄋᆞᆫ 굴머셔 알ᄅᆞᆫ 소리라○이 ᄢᅢ 너와 다ᄆᆞᆺ 뷔여 도라오니 男呻女吟ᄒᆞ고 四面ㅅ ᄇᆞᄅᆞ미 괴외ᄒᆞ도다

嗚呼二歌兮歌始放閭里爲我色惆悵

ᄉᆞᆯ프다 ᄃᆞᆯ챗 놀래 블로매 놀애ᄅᆞᆯ 비로소 펴니 ᄆᆞ올히 날 爲ᄒᆞ야 ᄂᆞᆺ비치 ᄉᆞᆯ허ᄒᆞᄂᆞᆺ다

有弟有弟在遠方三人各瘦何人强

아ᄋᆞ와 아ᄋᆞ왜

먼 ᄯᅡ해 잇ᄂᆞ니 세 사ᄅᆞ미 제여곰 여위니 어느 사ᄅᆞ미 康强ᄒᆞ뇨 生別展轉

不相見胡塵暗天道路長 展轉ᄋᆞ 바 不安也ㅣ라 ○사라셔 여

희여 展轉ᄒᆞ야 서르 보디 몯ᄒᆞ니 되 드트리 하ᄂᆞᆯ해 어듭고 길히 기도다 東飛駕

鵞後鵞鶬安得送我置汝傍 汝ᄂᆞᆫ 指弟ᄒᆞ다 ○東녀크로 ᄂᆞ

ᄂᆞ닌 駕鵞ㅣ오 뒤헨 鵞鶬ㅣ로소니 엇디 시러곰 나ᄅᆞᆯ 보내야 네 ᄀᆞ애다가 두려뇨 嗚

呼三歌兮歌三發汝歸何處收兄骨 슬프다 세채 ᄂᆞᆯ

애 블로매 노래ᄅᆞᆯ 세 번 브르노니 네 어듸 도라와 兄의 ᄲᅧᄅᆞᆯ 거둘다

有妹有妹在鍾離良人早歿諸孤癡 누위 누위 鍾離

ᄉᆞᄆᆞ올 잇ᄂᆞ니 남진ᄂᆡ 일죽 長淮浪高蛟龍
고 여러 ᄌᆞ식이니 어리도다
怒十年不見來何時 長淮ㅣ 믌겨리 놉고 蛟龍ㅣ 怒ᄒᆞᄂᆞ니 열 ᄒᆡᄅᆞᆯ
보디 몯호니 어느 ᄢᅵ 올고 扁舟欲往箭滿眼杳杳南國多
旌旗 져근 비 타 가고져 ᄒᆞ나 살ㅣ 누네 ᄀᆞᄃᆞᆨᄒᆞ얫ᄂᆞ니 아ᄋᆞ란 南國에 旌旗ㅣ 하도
다 嗚呼四歌兮歌四奏竹林猿為我啼清晝
슬프다 네챗 놀애 블로매 놀애를 네 번 놀브로니 대수프렛 나비 날 為ᄒᆞ야 몰곤 나죄 셔
우ᄂᆞ다
四山多風溪水急寒雨颯颯枯樹濕 四面ㅅ 뫼헤 보

ᄅᆞ미하고시냇므리ᄲᆞᄅᆞ니치 운
비颯颯ᄒᆞ니이운남기젓놋다 黃蒿古城

雲不開白狐跳梁黃狐立 黃蒿ㅅ뷘城에구
루미여디아니ᄒᆞ

얏ᄂᆞ니힌여ᄋᆞᆫ벼ᄂᆞᆯ
오누른여ᄋᆞᆫ셧도다 我生胡爲在窮谷中夜

起坐萬感集 나ᄂᆞᆫ므스그라기픈묏고래잇
ᄂᆞ뇨밦듕에니러안조니萬感

ㅣ몯
ᄂᆞ다 嗚呼五歌兮歌正長魂招不來歸故鄕

슬프다다ᄉᆞᆺ챗놀래블로매놀엣소리正히
기니넉슬블러도오디아니ᄒᆞ고故鄕으로

가ᄂᆞ
다

南有龍兮在山湫古木巃嵸枝相樛 巃嵸은
山高皃

ㅣ라○南녀킷龍ㅣ뫼ㅅ모새잇ᄂᆞ니 ᄂᆞᆫ근남기놉고가지서르굽도다 木葉黃
落龍正蟄蝮蛇東來水上遊 나못니피누르러듣고龍ㅣ正
히蟄藏ᄒᆞ얏거늘모딘비얌ㅣ東으로와믈우희노ᄂᆞ다 我行恠此安敢
出拔劍欲斬且復休 내녀이거ᄉᆞᆯ恠異히너기가니어ᄂᆞ구트여나
묘갈ᄲᅡ혀버히고져ᄒᆞ다가ᄯᅩ마로라 嗚呼六歌兮歌思遲溪
壑爲我回春姿 此一首ᄂᆞᆫ有此意ᄒᆞ니龍蟄은指玄宗之居南內ᄒᆞ고蝮
蛇ᄂᆞᆫ指史思明ᄒᆞ니라○ᄉᆞᆯ프다여ᄉᆞᆺ챗놀애블로매노래ᄇᆞ디기니溪壑ㅣ날爲ᄒᆞ야
봄양ᄌᆞ를횟돌아뵈ᄂᆞ다

男兒生不成名身已老三年飢走荒山道男兒
ㅣ나功名을일우디몯ᄒᆞ고모미ᄒᆞ마늘그니세ᄒᆡᄅᆞᆯ거츤묏길헤주려ᄃᆞᆮ니노라長
安卿相多少年富貴應須致身早長安애卿相ㅣ져므
니하니가ᅀᆞ멸며貴ᄒᆞ모ᄂᆞᆫ당당이모로매모매닐위요ᄆᆞᆯ일ᄒᆞ야아ᄒᆞ리로다山中
儒生舊相識但話宿昔傷懷抱묏가온ᄃᆡᆺ션비녜서ᄅᆞ아
더니오직녜이ᄅᆞᆯ니ᄅᆞ고ᄆᆞᅀᆞᄆᆞᆯᄉᆞᆯ로라嗚呼七歌兮悄終曲仰
視皇天白日速ᄉᆞᆯᄑᆞ다닐곱채노래블로매ᄉᆞᆯ허노래ᄅᆞᆯ ᄆᆞᆺ고하ᄂᆞᆯᄒᆞᆯ울
워러보니白日ㅣᄲᆞᆯ리가놋다

相從歌贈嚴二別駕

我行入東川十步一回首 내 녀 東川에 드러와 열 번 걷고 ᄒᆞᆫ 번 머리 돌아 보노라

成都亂罷氣蕭瑟浣花草堂亦何有 時예 徐知道ㅣ 反而伏誅ᄒᆞ니라 ○ 成都애 亂ㅣ ᄆᆞ차 氣運ㅣ 蕭瑟ᄒᆞ니 浣花溪옛 草堂앤 ᄯᅩ 므스 거시 이시료

梓州豪俊大者誰本州從事知名久 梓州옛 豪俊에 큰 니 누고 ᄆᆞᅀᆞᆶ 從事ᄅᆞᆯ 일훔 아루ᄆᆞᆯ 오래호라

把臂開樽飲我酒酒酣擊劒蛟龍吼 蛟龍은 劒ㅣ라 ○ ᄇᆞᆯ 잡고 樽을 여러 나ᄅᆞᆯ 술 머기니 술 醉ᄒᆞ야 갈ᄒᆞ로 듀니 蛟龍ㅣ 우르ᄂᆞ다

烏帽拂

塵靑螺粟紫衣將炙緋衣走 靑螺粟ᄋᆞᆫ帽紋也ㅣ라紫衣緋

衣ᄂᆞᆫ指當時執事者ᄒᆞ다○거믄紗帽를드틀버니프른螺앳소홈ᄀᆞᆮ도소니紫衣니븐

將ㅣ緋衣니븐ᄃᆡ며여付ᄐᆞ니놋다 銅盤燒蠟光吐日夜如何

其初促膝 銅盤ᄋᆞᆫ燭臺라○銅盤애미레블브티니비치ᄒᆡ롤비왓ᄂᆞᆫᄃᆞᆺᄒᆞ니

바미어드록고처엄무루플다혀안조라 黃昏始扣主人門誰謂

儀頃膠在漆 膠漆ᄋᆞᆫ言交情之堅固也ㅣ라○어스르메主人의門을비릇

두드료니아니한더테갓ᄀᆞ리오새이시리라뉘녀기료 萬事盡付形骸

外百年未見歡娛畢 萬事롤다내얼굴밧긔브료니百年에歡娛ᄆᆞ

ᄎᆞᄆᆞᆯ보디몯ᄒᆞᆯ둣도다 神傾意豁真佳士久客多憂今

愈疾 ᄆᆞᅀᆞᆷᄋᆞᆯ기우리며ᄠᅳ디훤ᄒᆞ야真實로아ᄅᆞᆷ다온사ᄅᆞ미로소니오란나그내ㅣ

시르미하다니오ᄂᆞᆫ病ㅣ됴호라 高視乾坤又可愁一軀交

態同悠悠 悠悠ᄂᆞᆫ泛交之意라○노피乾坤ᄋᆞᆯ보니ᄯᅩ可히시름ᄃᆞ외니내ᄒᆞᆫ

모매사괴논양ᄌᆡᄒᆞᆫ가지로悠悠ᄒᆞ도다 垂老遇君未恨晩似君

須向古人求 늘구메다ᄃᆞ라그듸맛나미느주믈뉘읏디아니ᄒᆞ노니그듸

ᄀᆞᄐᆞᆫ모로매녯사ᄅᆞ미게向ᄒᆞ야어들디로다

戲贈閿鄉秦少府短歌

去年行宮當太白朝回君是同舍客太白山ㅣ在鳳
翔ᄒᆞ니라謂肅宗ㅣ駐鳳翔時예甫ㅣ爲拾遺ㅣ러니朝罷而來ᄒᆞ야與秦少府로同館
也ㅣ니라○니건ᄒᆡ예行宮ㅣ太白山을當ᄒᆞ야겨시거늘朝會를도라오니그듸이ᄒᆞᆫ
지빗나그내ᄃᆞ외니라 同心不減骨肉親每語見許文
章伯ᄆᆞᄋᆞᆷᄀᆞᆮᄐᆞ미骨肉아ᄋᆞ매디디아니ᄒᆞ오니ᄆᆡ양말ᄉᆞᆷᄒᆞ매나ᄅᆞᆯ文章앳伯ㅣ
라許ᄒᆞᄆᆞᆯ뵈터라 今日時淸兩京道相逢苦覺人情
好오ᄂᆞᆳ날時節ㅣᄆᆞᆯᄀᆞᆫ두서욼길헤서르마조보와人情의됴ᄒᆞ믈심히아노라 昨
夜邀歡樂更無多才依舊能潦倒容止蘊藉者ㅣ爲潦

倒ㅣ라○어제 바미 邀請ᄒᆞ야 즐기던 이리 다시 업스니 지조한 그듸는 네로브터 能히 곱도다

同元使君舂陵行并序

覽道州元使君結舂陵行과 兼賊退後에 示官吏作二首ᄒᆞ고 志之曰當天子ㅅ分憂之地ᄒᆞ얀 效漢官ㅅ良吏之目ᄒᆞ니 今盜賊ㅣ未息ᄒᆞ니 知民疾苦로 得結輩十數公ᄒᆞ야 落落然參錯天下ᄒᆞ야 爲邦伯ᄒᆞ면 萬物ㅣ吐氣

ᄒᆞ야 天下ㅣ少安은可待矣리라不意復見比
興體制ㅣ微婉頓挫之詞ᄒᆞ니 다 感而有詩
ᄒᆞ야 增諸卷軸ᄒᆞ야 簡知我者외不必寄元ᄒᆞ노
라○道州ㅅ元使君結의春陵行과兼賊
退後예官吏뵈노라지은두마리ᄅᆞᆯ보고
志錄ᄒᆞ야닐오ᄃᆡ天子ㅅ시르믈ᄂᆞᆫ호ᄂᆞᆫ
付홀當ᄒᆞ야付ᄂᆞᆫ漢官ㅅ어진負의條目
올비홀ᄃᆡ니이제盜賊ㅣ굿디아니ᄒᆞ니
百姓의疾苦알리ᄅᆞᆯ結의무렛열두어사
ᄅᆞᄆᆞᆯ어더落落히天下애섯거邦伯을사
ᄆᆞ며萬物ㅣ氣運은비왓타天下ㅣ져기
便安호ᄆᆞᆯ어루기들우리라ᄯᅩ興體制로
지어微婉頓挫ᄒᆞᆫ말ᄉᆞᄆᆞᆯ다시보믈너기

다아니ᄒᆞ다니感動ᄒᆞ야글지어卷軸에
더어날아ᄂᆞᆫ사ᄅᆞ미게글월ᄒᆞ고구틔여
元結의게브티
더아니ᄒᆞ노라

遭亂髮盡白轉衰病相嬰
亂올맛니러머리
다셰니ᄆᆞ장衰老
ᄒᆞ야病ㅣ서르
버므렛도다

沉緜盜賊際狼狽江漢行
盜
賊
의ᄀᆞ애오래病ᄒᆞ고江
漢애녀몸狼狽히호라

歎時樂力薄為客羸瘵成
上句ᄂᆞᆫ言憂時之亂故로雖飲樂而病
不愈也ㅣ라○時節嗟嘆ᄒᆞ니樂의히
미엷고나그내ㅣᄃᆞ외야쇼
매시드러운病ㅣ이러라

吾人詩家秀博采世上名
此ᄂᆞᆫ甫ㅣ自謂也ㅣ라○나ᄂᆞᆫ글ᄒᆞ
ᄂᆞᆫ지븨秀出호니世上앳일후믈너

비기얏노라 縈繫元道州前聖畏後生 孔子曰後生可畏라
ᄒᆞ시니此ᄂᆞᆫ指道州也ㅣ라○빗난元道州여알ᄑᆡ聖人ㅣ後에나ᄂᆞᆫ사ᄅᆞ믈져ᄒᆞ시니
라 觀乎春陵作歎見俊哲情 春陵에지은글를보고俊哲ᄒᆞᆫ
사ᄅᆞ미ᄠᅳ들믄득보과라 復覽賊退篇結也實國楨 盜賊ㅣ믈
러니거ᄂᆞᆯ지은그를ᄯᅩ보니元結은眞實로나라햇楨幹ㅣ로다 賈誼昔流
慟匡衡常引經 匡衡ㅣ上疏陳便宜ᄒᆞ며朝廷有議에傳經以待ᄒᆞ니라
此ᄂᆞᆫ以二人으로比道州ᄒᆞ다○賈誼ㅣ네流涕ᄒᆞ야슬코匡衡ㅣ샹녜經術을혀더니
라 道州憂黎庶詞氣浩縱橫 道州ㅣ百姓을시름ᄒᆞ야글지

두위터프를엿보고ᄆᆞᄋᆞᆯ해비ᄂᆞᆫ거스려시를내로ᄃᆞᆫᄃᆞᆺ놋다

釣艇收緡盡昏鴉接翅稀고기낫ᄂᆞᆫ비예낛줄가도ᄆᆞᆯ모ᄎᆞ니나죗가마괴ᄂᆞᆫᄂᆞᆯ개니어노오미드므도다

月生初學扇雲細不成衣天上浮雲이如白衣라ᄒᆞ니此ᄂᆞᆫ不如衣也ㅣ라○ᄃᆞᄅᆞᆫ나처엄부체를비ᄒᆞᆫ고구루믄ᄀᆞᄂᆞ라오시이러몯ᄒᆞ놋다

萬國尚防寇故園今若何萬國ㅣ오히려도ᄌᆞᄀᆞᆯ막ᄂᆞ니故園ᄋᆞᆫ이제엇더ᄒᆞᆫ고

昔歸相識少早已戰場多비가니서르아논사ᄅᆞ미적더니일ᄒᆞ마戰場ㅣ할서니라

身覺省[illegible]家須農事歸 甫ㅣ爲工部員外郎ᄒᆞ니라○모ᄆᆞᆫ

ᄉᆡᆼ郎ㅣ이슈믈아ᄂᆞ니지비모로매農事로가노라 年深荒草徑老恐

失柴扉 이ᄂᆞᆫ길헤프리거플서柴扉를보디몯ᄒᆞᆯ기저헤니라○플거츤길히ᄒᆡ

기프니늘거셔柴扉를일흘가젼노라

金絲鏤箭鏃皂尾製旗竿 二物은皆胡人所用ㅣ라○金실로

살미틔실드리고거믄ᅀᅭ리로旗ㅅ대예ᄆᆡᆼᄀᆞ랏도다 一自風塵起猶

嗟行路難 ᄒᆞᆫ번風塵ㅣ니루므로브터ᄃᆞᆫ니ᄂᆞᆫ길히어려우믈오히려슬노라

貞觀銅牙弩開元錦獸張 弩ᄂᆞᆫ弓弩ㅣ라錡弦曰牙ㅣ니以銅

爲之니라錦獸張者ᄂᆞᆫ亦弩之物ㅣ라 貞觀엣銅牙弩와開元엣錦獸張ㅣ여 ○花

門小箭好 此物棄沙場

此物은指銅牙弩錦 獸張ᄒᆞ다須溪云用

夏變英ᄒᆞ야輕棄前華로다○花門의져 근사리됴ᄒᆞᆯ시이거슬沙場애ᄇᆞ룃도다

胡虜何曾盛 干戈不肯休

胡虜ᄂᆞᆫ엇디일즉 盛ᄒᆞ거뇨干戈ㅣ

마로ᄆᆞᆯ즐기디 아니ᄒᆞᄂᆞ다

閭閻聽小子 談笑覓封侯

ᄆᆞ 올

해아ᄒᆡ마ᄅᆞᆯ드르니말ᄉᆞᆷᄒᆞ、며우 음우어셔諸侯封ᄒᆞ리ᄅᆞᆯ엇ᄂᆞ다

今日翔麟馬 先宜駕鼓車

○翔麟은厩名ㅣ라 오ᄂᆞᆳ날翔麟엣

ᄆᆞᄅᆞᆫ몬져붑시론술위 메요미맛당ᄒᆞ더니라

無勞問河北 諸將角

榮華言河北諸將ㅣ今棄此馬而角得榮華也ㅣ라○河北ㅅ녀클잇비믈디말ᄅᆞᆯ
디ᄅᆞ리諸將ㅣ榮華ᄅᆞᆯ도토ᄂᆞ다
任轉江淮粟休添苑囿兵言轉江淮之粟ᄒᆞ야以實河北ᄒᆞ고
勿添禁苑之兵也ㅣ니라養鳥獸曰苑ㅣ오苑有垣曰囿ㅣ라○江淮옛조ᄡᆞᆯ옮교ᄆᆞᆯ任
意로ᄒᆞ고苑囿에兵馬ᄅᆞᆯ더으디마ᄅᆞᆯ디어다由來貔虎士不滿鳳
凰城네로브터오매貔虎ᄀᆞᄐᆞᆫ士卒ᄋᆞᆫ鳳凰城에ᄀᆞᄃᆞᆨ게아니ᄒᆞᄂᆞ니라
江上亦秋色火雲終不移ᄀᆞᄅᆞᆷ우희ᄯᅩᄀᆞᅀᆞᆳ비치로ᄃᆡ블ᄀᆞᆮᄒᆞᆫ
구루믄ᄆᆞᄎᆞᆷ애옮디아니ᄒᆞᄂᆞ다巫山猶錦樹南國且黃鸝

ᄒᆞ리이니 刺史ㅣ 欲爲逃罪리오 若不應命면

又卽獲罪戾ᄒᆞ야 必不免也니 吾將守官

ᄒᆞ야 靜以安人待罪而已로리리 此州ᄂᆞᆫ是

春陵故地故로 作春陵行ᄒᆞ야 以達下情

ᄒᆞ노라 漫叟ᄂᆞᆫ 元結之号ㅣ라 ○ 癸卯ᄒᆡ예 漫叟ㅣ 道州ㅅ 負올 ᄒᆞ니 道州ᄂᆞᆫ 녜 四萬餘户ㅣ러니 도ᄌᆞᆨ 디내야 오매 四千ㅣ ᄎᆞ디 몯ᄒᆞ더 半나마 賦稅를 이기디 몯ᄒᆞᄂᆞ다 ᄀᆞ의예 오미 쉰나리 몯ᄒᆞ되 여러 使臣의 徵求ᄒᆞᄂᆞᆫ 符牒 二百 나ᄆᆞ닐 바도ᄂᆡ게 다 닐오ᄃᆡ 期限올 일ᄒᆞ닌 罪ㅣ 貶職削地ᄒᆞ매 니르리라 ᄒᆞ

너ᄂᆞᆯ ᄠᅳ다 萬一다 그 命令을 對答ᄒᆞ면
ᄆᆞᄋᆞᆯ히 破亂ᄒᆞ리이니 負ㅣ 어느 罪로
逃避ᄒᆞ리오 萬一 命令을 對荅디 아니
ᄒᆞ면 ᄯᅥ끈 罪니 ᄂᆡ 반ᄃᆞ시 免티 몯ᄒᆞ리
니 나ᄂᆞᆫ 將帥ㅅ 官職ᄋᆞᆯ 守ᄒᆞ야 安靜ᄒᆞ
야 사ᄅᆞᆷᄋᆞᆯ 便안케 ᄒᆞ야셔 罪ᄅᆞᆯ 기ᄃᆞᆯ우
리라 이 ᄆᆞ올혼이 春陵ㅅ 녯 다흰시 春
陵行ᄋᆞᆯ 지어 아ᄅᆞᆺᄠᅳ들 適遼ᄒᆞ노라

軍國多所須切責在有司有司臨郡縣刑
法竟欲施 軍國에 須求ᄒᆞᄂᆞᆫ 배 하니 ᄀᆞ장 責호미 有司의게 잇도다 有司
ㅣ ᄀᆞ올해 來臨ᄒᆞ이 刑法을 ᄆᆞᄎᆞ매 베프고져 ᄒᆞᄂᆞ다 供給豈不憂
徵斂又可悲 ᄀᆞᆺ기 호믈 엇뎨 시름 아니ᄒᆞ리오마ᄂᆞᆫ 百姓의게 바도미

任可히 슬ᄑᆞ도다 州小經亂亡遺人實困疲大鄕

無十家大族命單羸 ᄆᆞ올히 적고 亂ᄂᆞᆯ ᄃᆡ내니기 텟ᄂᆞᆫ 사ᄅᆞ

미 진실로 ᄀᆞᆺ가ᄒᆞᄂᆞᆺ다 큰 ᄆᆞ올히 고열지 비 업고 큰 族屬도 性命ㅣ 외ᄅᆞ외며 시드

럽도다 朝餐是木根暮食乃木皮出言氣欲

絶意速行步遲 言困疲之狀ᄒᆞ다 ○ 아ᄎᆞᆷ 먹논 거시 이 나모 불휘오

나죄 먹논 거시 나못 거프리로다 말ᄉᆞᆷ 닐 우메 氣運ㅣ 그츨 ᄃᆞᆺᄒᆞ고 ᄠᅳ디 ᄲᆞᆯ라도 거

름 거로미 더듸도다 追呼尚不忍況乃鞭撲之 조차 ᄇᆞ로

몰 오히려 ᄎᆞᆷ디 몯ᄒᆞ 려니 ᄒᆞ물며 ᄠᅥ리아 郵亭傳急符來往迹

相追更無寬大恩 但有促迫期역에셔ᄲ로符牒을
傳ᄒᆞ니오며가ᄂᆞᆫ자최서르조챗도다가ᄉᆞ야어위큰恩惠ᄂᆞᆫ업고오ᄌᆡᆨ뵈아ᄂᆞᆫ期
限ㅣ 잇ᄯᅩ다 欲令鸞兒女言發怨亂隨惡令索
貧家而又無生資히여아히로ᄒᆞᆯ풀라고져권마ᄅᆞᆫ마ᄅᆞᆯ내면亂
ㅣ조출가져프고다ᄒᆞ어그지블드위라코져ᄒᆞ나ᄯᅩ사ᄅᆞᆯ資産ㅣ업도다聽
彼道路言怨傷誰復知더길헷사ᄅᆞ미마ᄅᆞᆯ드로나怨望ᄒᆞ
며ᄉᆞᆯ호믈뉘ᄯᅩ알라오 去冬山賊來殺奪幾無遺니건
겨으레뫼도ᄌᆞ기와주기며아아거의기ᄐᆞᆫ거시업도다所顧見王官

撫養以惠慈柰何重驅逐不使存活爲[illegible] 願ᄒᆞᄂᆞᆫ바ᄂᆞᆫ님금官人ᄋᆞᆯ보와惠慈로배 撫養과ᄃᆡ여ᄒᆞ게ᄂᆞᆯ엇뎨다시모라ᄧᅩ차 ᄒᆞ여살에ᄒᆞ디 아니ᄒᆞᄂᆞ니오

安人天子命符節我所持 사ᄅᆞᄆᆞᆯ편안케 ᄒᆞᄂᆞᆫ天子ㅅ詔

命ㅣ오符節오내가졋ᄂᆞᆫ거시니ᄆᆞᄋᆞᆯ옷 ᄆᆞᆫ득亂亡ᄒᆞ면罪니부믄ᄯᅩ이뉘리오

州縣忽亂亡得罪復是誰

逋緩違詔令蒙責固所宜 느주워詔令 을그르ᄎᆞ면罪

責니부미진실로 맛당ᄒᆞᆫ배니라

前賢重守分惡以禍福 녯어딘사ᄅᆞ ᄆᆞᆫ職分을固

移亦云貴守官不愛能適時

守ᄒᆞ몰重히너기고禍福으로ᄡᅥ移易ᄒᆞ몰아쳐러ᄒᆞ며ᄯᅩ닐오ᄃᆡ官職을固守ᄒᆞ미貴ᄒᆞ고然히時節조차가몰ᄉᆞ랑ᄒᆞ다아니ᄒᆞ니라

頗惟孱弱者 正直當不虧 何人採國風 吾欲獻此辭 古者에採列國風謠ᄒᆞ야以察民俗ᄒᆞ더니라○내氣運殘弱ᄒᆞ니ᄂᆞᆫ正直호몰반ᄃᆞ기이저ᄇᆞ리디아니호리라어느사ᄅᆞ미國風을採取ᄒᆞᆯ고내이말ᄉᆞ몰받ᄌᆞᆸ고져ᄒᆞ노라

退賊示官吏 幷序 元結次山

癸卯歲예西原賊ㅣ入道州ᄒᆞ야焚燒殺

掠幾盡而去ᄒᆞ고 明年에 賊ㅣ 又攻永破
邵ᄒᆞ되 不犯此州ㅅ邊鄙而退ᄒᆞ니 豈力能
制敵歟ㅣ리오 蓋蒙其傷憐而已라니 諸使
ᄂᆞᆫ 何為忍苦徵歛고 故로 作詩一篇ᄒᆞ야
以示官吏ᄒᆞ노라○癸卯ᄒᆡ예 西原ㅅ 도ᄌᆞ기 道州예 드러와 블 디
ᄅᆞ고 주기며 아오몬 거의 다ᄒᆞ야가 이듬ᄒᆡ예 도ᄌᆞ기 ᄯᅩ 永州를 티며 邵州
를 헤티되 이 ᄀᆞ옰 ᄀᆞᅀᆞᆯ 侵犯 아니ᄒᆞ야 믈러가니 엇뎨 우리 히미 能히 뎌 편을
制禦ᄒᆞ리오 제 슬피 너교ᄆᆞᆯ 니배니라 여러 使臣은 엇뎨 차마 심히 徵歛ᄒᆞᄂᆞ뇨

나오故로글ᄒᆞᆫ篇을
지어官吏ᄅᆞᆯ뵈노라

昔歲逢太平山林二十年泉源在庭戶洞

壑當門前此ᄂᆞᆫ言太平之時예民皆散居山林泉壑之間也ㅣ라○녜예太平을맛나니山林에ᄉᆞ믈히ᄅᆞᆯ서미ᄠᅳᆯ와門戶애잇고묏고리門알ᄑᆡ當ᄒᆞ얏더니라

井稅有常期日晏猶得眠井田에賦稅ㅣ덛덛ᄒᆞᆫ期限ㅣ이시니나리늦도록오히려시러곰조오더니라

忽然遭世

變數歲親戎旃今來典斯郡山夷又紛然

믈드시世變올맛니러두어ᄒᆡᄅᆞᆯ사호맷旌旗ᄅᆞᆯ親히ᄒᆞ라이제와이ᄀᆞ올ᄒᆞᆯᄀᆞ음

아로니뫼햇되任어즈럽도다 城小賊不屠人貪傷可憐

城郭ㅣ져고뎌도ᄌᆞ기屠殺아니ᄒᆞ니사ᄅᆞ미관ㅣ안ᄒᆞ야슬퍼可히에엿블서니라

是以陷隣境此州獨見全 이러홀서이읏仵효陷沒ᄒᆞ되

이ᄆᆞ올히ᄒᆞ오아오ᄋᆞ라이쇼ᄅᆞᆯ보니라 使臣將王命豈不如

賊爲令彼徵斂者迫之如火煎 使臣ㅣ님금命令을

가져쇼뒤엇데도ᄌᆞᆨ마도ᄅᆞᆫ디몯ᄒᆞ니오이제뎌徵斂ᄒᆞᄂᆞᆫ사ᄅᆞᆷㅣ뵈아뎌블로ᄃᆞᆯ

히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 誰能絶人命以作時世賢 뉘能히사ᄅᆞ미

목수믈그쳐時世옛어디로물ᄃᆞ외리오 思欲委符節引竿自

刺船將家就魚麥歸老江湖邊貧의符節을ᄇᆞ리고댓나출허내ᄇᆡᄅᆞᆯ달려뎌어가고져ᄒᆞ노라집사ᄅᆞᆷ더브러고기와보리밀잇ᄂᆞᆫᄃᆡ나아가江湖ㅅᄀᆞ의가늘고리라

偪側行 贈畢曜

偪側何偪側我居巷南子巷北偪側은相迫也ㅣ라○어려우며不모어려우니나ᄂᆞᆫ굴헝南녀킈살오그듸ᄂᆞᆫ굴헝北녀킈로다可憐隣里閒十日一不見顔色可히슬프다ᄆᆞᅀᆞᆳ이예셔열흐레ᄒᆞᆫ번도顔色을보디몯ᄒᆞ호라自從官馬送還官行路難行澁

如棘時예必借乘官馬也ㅣ로다○구위ᄆᆞ ᄅᆞᆯ구위예도로보내요ᄆᆞᄅᆞ로브텨녀논

길히녀미어려웟險澁 ᄒᆞ미가져시리곤도다 我貧無乘非無足昔

者相過今不得 내가난ᄒᆞ야ᄐᆞᆯ거시업스나 바ᄅᆞᆯ인ᄃᆡ아니건마ᄅᆞᆫ녜서

르ᄃᆡ나가던ᄃᆡᄅᆞᆯ 이제몯ᄒᆞᄂᆞ라 實不是愛微軀又非關足

無力徒步翻愁官長怒此心炯炯君應識 眞實

로이져근모ᄆᆞᆯᄉᆞ랑ᄒᆞ미아니며ᄯᅩ바래힘 업수매關係ᄒᆞᆫᄃᆡ아니라거러가매도로혀

官長ㅣ怒ᄒᆞᆯ가시름ᄒᆞ노니이ᄆᆞᅀᆞ 미ᄇᆞᆯ고ᄆᆞᆯ그듸당당ㅣ아ᄅᆞ니라 曉來急

雨春風顚䫂義不聞鍾鼓傳 재배ᄯᆡᄅᆞᆫ비예 붑브ᄅᆞ미업드

게부니ᄌᆞ오로미도하鍾鼓ㅅ소리傳ᄒᆞᄆᆞᆯ듣디몯ᄒᆞ라東家蹇驢許借

我泥滑不敢騎朝天東녁집젼나귀ᄅᆞᆯ빌이건마ᄅᆞᆫᄒᆞ기ᄆᆞᆺ그러

위구틔여타朝天ᄒᆞᄃᆡ몯ᄒᆞ라已令請急會通籍男兒性命

絶可憐請急은謂請假也ㅣ라○ᄒᆞ마ᄒᆞ여通籍모ᄃᆞ며急을請ᄒᆞ니男兒이性

命ㅣᄀᆞ장可히슬프도다焉能終日心拳拳憶君誦詩神

凜然拳拳은憂也ㅣ라○엇뎨能히나리못도록ᄆᆞᄋᆞ매拳拳ᄒᆞ료그ᄃᆡᄅᆞᆯᄉᆞ랑ᄒᆞ

야셔그를외오니ᄆᆞᅀᆞ미凜然ᄒᆞ도다辛夷始花亦已落況我

與子非壯年辛夷ㅣ正二月에開花ᄒᆞᄂᆞ니南人ㅣ呼爲迎春ㅣ니라○辛

夷칫고지또ᄒᆞ마다니ᄒᆞ몰며나 와그믜왜저믄나히나니로다 街頭酒價常苦貴方外酒徒稀醉眠 거릿머리엣숤비디 댱샹심히貴ᄒᆞ니 方外옛술머글무리醉ᄒᆞ야ᄌᆞ오로미드므도다 速宜相就飲一斗恰有三百青銅錢 ᄲᆞᆯ리서르나아와ᄒᆞᆫ마ᄅᆞᆯ 머구미맛당ᄒᆞ니三百낫 青銅돈ㅣ 마치잇다

錦樹行

今日苦短昨日休歲云暮矣增離憂 오ᄂᆞᆳ나 리심히 뎌르고어젯나리업스니歲ㅣ 느저 가니여희여ᄂᆞᆫ시르미더으ᄂᆞ다 霜凋碧

樹作錦樹萬壑東逝無停留서리예프른남기버러뎌錦ᄀᆞᆮ
ᄐᆞᆫ남기ᄃᆞ외니萬壑엣므리東녀ᄀᆞ로흘러가머므로미업도다
荒戍之城石色古東郭老人住青丘荒戍城ᄋᆞᆫ指赤甲城ㅣ오東郭ᄋᆞᆫ指
夔州之郭ㅣ라老人ᄋᆞᆫ甫ㅣ라○거츤防戍ᄒᆞ논城에돐비치ᄂᆞᆯᄀᆞ니東郭앳늘근사ᄅᆞ
미프른두듥게머므러쇼라飛書白帝營斗粟琴瑟几杖
柴門幽白帝城에글워를ᄂᆞᆯ여ᄒᆞᆫ맔조ᄒᆞᆯ營求ᄒᆞ니琴瑟几杖잇ᄂᆞᆫ뎌섭나모門
ㅣ幽悰ᄒᆞ도다青草萋萋盡枯死天驥跛足隨氂牛
氂牛ᄂᆞᆫ此ᄂᆞᆫ喻君子ㅣ失所而混於小人之中也ㅣ라○프른플萋萋ᄒᆞ던거시다이우러

좃내하요驥馬ㅣ바리저러蹇牛를조차도니놋다自古聖賢多薄命姦雄惡少封公侯녜로브터聖賢은命사오나오니하고姦雄과모딘져므니아公侯를封히ᄂᆞ니라故國三年一消息終南渭水寒悠悠終南山及渭水ㅣ皆在長安ᄒᆞ니라○故國에세ᄒᆡ예아ᄒᆞᆫ번消息을보니終南山과渭水ㅣ치위머도다五陵豪貴反顚倒鄕里小兒狐白裘漢帝五陵ㅣ在長安ᄒᆞ니라○五陵엣豪貴ᄒᆞ더니도ᄅᆞ혀갓ᄆᆞ랏고ᄆᆞ올햇아ᄒᆡ돌히아여의힌갓오ᄉᆞᆯ니버도다生男墮地要膂力一生富貴傾邦國言有膂力則可以用武ᄒᆞ야立功名也ㅣ라○

아ᄃᆞᆯ나호ᄆᆞᆫ仟해디다가며등어리옛히미
조ᄋᆞ로외니一生애가ᅀᆞ멸며貴호미나라
홀기우리ᄂᆞ니라莫愁父母少黃金天下風塵兒亦
得父母의黃金져구믈시름마롤디니天下애風塵잇ᄂᆞᆫ저긔아히도任연ᄂᆞ니라

嚴氏溪放歌

天下兵馬未盡消豈免溝壑常漂漂天下옛兵馬ㅣ
다업디몯ᄒᆞ니溝壑애常벼ᄅᆞᆯ노ᄆᆞᆯ어느免ᄒᆞ료長鋏南歲月不可度
邊頭公卿仍獨驕鋏南ㅅ歲月을可히디내다몯ᄒᆞ리로소니ᄀᆞᅀᆞᆺ公
卿ᄃᆞᆯᄒᆞᆫ지조로ᄒᆞ오와驕慢ᄒᆞ도다費心姑息是一役肥肉大

酒徒相要此ᄂᆞᆫ言邊將驕傲ᄒᆞ야付唯務姑息之政ᄒᆞ고以酒肉으로相要樂耳니라○姑息ᄒᆞ며ᄆᆞᄋᆞᆷ虛費ᄒᆞ미이ᄒᆞᆫ役事ㅣ로소니술진고기와큰술로ᄒᆞᆫ갓서르要求ᄒᆞ놋다

嗚呼古人已糞土獨覺志士甘漁樵志士ᄂᆞᆫ指嚴氏也ㅣ라○늘그니다녯어딘사ᄅᆞ미ᄒᆞ마ᄒᆞᆰ기ᄃᆞ외니志士ㅣ고기낫ᄀᆞ며나모짐을ᄃᆞᆯ히너몸ᄒᆞ올로아놋다 〓

況我飄轉無定所終日慽慽忍覊旅甫ㅣ避地流徙ᄒᆞ야無所依止也ㅣ라○ᄒᆞ믈며내올마ᄃᆞᆫ녀一定ᄒᆞᆫ셔허업소니나리ᄆᆞᆺᄃᆞ록슬허셔나그ᄂᆡᄃᆞ외야쇼ᄆᆞᆯᄎᆞᆷ노라

秋宿霜溪素月高喜得與子長夜語ᄆᆞᅀᆞᆯᄒᆡ서리온시내해자매힌

ᄃᆞ리노ᄅᆞ니그듸와괸밤의말ᄒᆞᆷ어드믈깃노라 東遊西還力實倦

從此將身更何許 東으로놀며西으로도라오매히미實로ᄀᆞᆺ브니일로브티몸가져ᄯᅩ어듸가려뇨 知子松根長茯苓遲莫有意

來同煮 그듸솔불휘예茯苓ㅣ기루믈하노니늘거와ᄒᆞᆫᄃᆡ셔글혀먹고져ᄇᆞ를ᄃᆞᆺ노라

虎牙行

秋風欻吸吹南國天地慘慘無顏色 ᄀᆞᅀᆞᆶᄇᆞᄅᆞ미ᄲᆞᆯ리南國을부ᄂᆞ니天地ᄉᆞᆯᄑᆡᄂᆞᆺ빗치업도다 洞庭揚波江漢回虎

牙銅柱皆傾側 虎牙銅柱ᄂᆞᆫ皆灘名ㅣ니在荊門ᄒᆞ니라○洞庭ㅣ믌겨리부치고江漢ㅣ횟도로혀ᄂᆞᆫᄃᆞᆺᄒᆞ니虎牙와銅柱ㅣ다기우리혓도다

巫峽陰岑朔漢氣峯巒窈窕溪谷黑 巫峽어드운묏부리옌朔漢앳氣運ㅣ로소니묏부리깁수위오시벗묏고리검어듭도다

杜鵑不來猿狖寒山鬼幽憂霜雪逼 졉동새오지아니ᄒᆞ고나비치우니뫼햇귓거시幽深ᄒᆞᆫᄃᆡ셔시름ᄒᆞ고서리와눈괘ᄀᆞᆺ갑도다

楚老長嗟憶炎瘴三尺角弓兩斛力 兩斛力은兩斛올활시우레믜여드리워돌욀시니이ᄂᆞᆫᄇᆞᄅᆞ미치위활히미셜시라○楚ᄉᆞ늘근사ᄅᆞ미기리슬허셔더위를ᄉᆞ랑ᄒᆞ

ᄂᆞ니 석자 힌 벌화리 두 셤만 돌월히 미로다 壁立石城橫塞起金

錯旟竿滿雲直 虎牙ᄂᆞᆫ常為屯守之地라○石壁ㅣ션ᄃᆞᆺᄒᆞᆫ 돌城ㅣ邊塞

예 빗겨 니렛ᄂᆞ니 金실 드린 旌旗ㅅ 대 구루ᄃᆡ ᄀᆞ도ᄒᆞ아 고ᄃᆞᆺ도다 漁陽突騎

獵青丘犬戎鎮甲閒丹極 青丘ᄂᆞᆫ屬洛陽ᄒᆞ니라○漁陽앳 돌

이ᄂᆞᆯ ᄃᆞ니 青丘에와 畋獵ᄒᆞᄂᆞ니 犬戎ㅣ 鎖甲 니브닐 丹極에와 丘믈 드르리로다

八荒十年防盜賊征戍誅求寡妻哭遠客中

宵淚霑臆 八荒ㅣ 열히ᄅᆞᆯ 盜賊을 마그니 征戍ᄒᆞ야 軍糧 바도매 ᄒᆞ올 겨지비

털워 우ᄂᆞ니 먼 나그내 밦中에 눈므를 가ᄉᆞᆷ애 저지ᄂᆞ라

負薪行

夔州處女髮半華四十五十無夫家夔州人處女ㅣ
머리반만셰니나히마ᄋᆞᆫ쉬비샤옹의지비업도다更遭喪亂嫁不售
一生抱恨堪咨嗟任喪亂을맛니러샤옹어로몯발뵈디몯ᄒᆞ니一生
애셜온ᄆᆞᄋᆞ믈아나ᄂᆞ니슬험즉ᄒᆞ도다土風坐男使女立應當
門戶女出入峽民ㅣ男爲商ᄒᆞ고女當門戶ᄒᆞᄂᆞ니坐肆於市ᄒᆞ며負擔於
道路者ㅣ皆婦人也ㅣ라○그風俗ㅣ남지ᄂᆞᆫ안잣고겨지브로ᄒᆡ여ᄃᆞᆫ녀門戶애손ᄃᆡ답
ᄒᆞ야겨지비아드나ᄃᆞ놋다十猶八九負薪歸賣薪得錢

應供給열사ᄅᆞ매오히려엳아홉곰나모져오ᄂᆞ니나모ᄑᆞ라돈어더갓가ᄅᆞᆯ應
當ᄒᆞ놋다至老雙鬟只垂頸野花山葉銀釵並늘고
매니ᄅᆞ도록두녁머리ᄆᆞ존거시오직모기드렷ᄂᆞ니ᄆᆡ햇ᄭᅩᆺ과뫼헤나모닙과銀빈혀
에ᄀᆞᆯ왓도다筋力登危集市門死生射利兼鹽井
힘벼노ᄑᆞᆫ뫼헤올아나모져져졧門에몯ᄂᆞ니生死애利ᄅᆞᆯ어두리우므렷소고몬조처
ᄒᆞ놋다面粧首飾雜啼痕地褊衣寒困石根ᄂᆞ치
ᄇᆞᄅᆞᆫ것과머리仔민뒤우ᄅᆞᆷ그제셧것ᄂᆞ니ᄯᅡ히좁고오시치워돐미틔잇비ᄃᆞ니놋다
若道巫山女麤醜何得此有昭君村ᄒᆞ다가巫山앳

겨지비더럽다닐올뎬엇뎨시러곰

이어긔王昭君의ᄆᆞᅀᆞᆯ히이시리오

最能行

峽中丈夫絕輕死少在公門多在水 峽中엣남진ᄋᆞᆫ히ᄆᆞ장주구믈므던히너겨구읫門에이슈믄져고므레이슈미하도다

富豪有錢駕大舸貧窮取給行艓子 艓音葉ᄒᆞ니小舟也ㅣ라

○가ᅀᆞ며러돈뒷ᄂᆞ니ᄂᆞᆫ큰ᄇᆡ를머여ᄐᆞ고가난ᄒᆞ니ᄂᆞᆫ給을取ᄒᆞ몯ᄒᆞ야효근ᄇᆡ를타ᄃᆞᆫ니ᄂᆞ다

小兒學問止論語大兒結束隨商旅 져믄아ᄒᆡ글ᄇᆡ호ᄆᆞᆫ論語ᄲᅮᆫ니오큰아ᄒᆡᄂᆞᆫᄆᆡ무어흥졍홀나그내로조차ᄃᆞᆫ니ᄂᆞ다

歊

帆側柁入波濤撇漩捎濆無險阻 撇은音結反ᄒᆞ니過也ㅣ오漩은水之回者ㅣ라○빗돗글기우리며비ᄎᆞᆯ기우려믌결로드러기ᄂᆞ니횟돈ᄃᆡ로ᄃᆡ나며믌ᄆᆞ올ᄆᆞ리터가險阻ᄒᆞᆫ몸업시ᄒᆞ놋다

朝發白帝暮江陵頃來目擊信有徵 아ᄎᆞᄆᆡ白帝城의셔나나조ᄒᆡ江陵의가ᄂᆞ다ᄒᆞ더니요조ᅀᆞᆷ누네보니眞實로徵驗ᄒᆞ미잇도다

瞿塘漫天虎鬚怒歸州長年興最能 峽人ㅣ以操舟人으로爲長年ㅣ라最能은負船水手之稱ㅣ라○瞿塘ㅅ믌ㅣ하ᄂᆞᆯ해ᄀᆞ득고虎鬚ㅅ여흐리怒ᄒᆞᄂᆞ니歸州ㅅ長年과다ᄆᆞᆺ最能괘ᄃᆞ니놋다

此州之人氣量窄誤競南風疎北

客이 ᄆᆞᄋᆞᆳ사ᄅᆞᆷ오 氣量이 조ᄇᆞ 南風으란 외오 도토고 北나그내란 踈히 ᄒᆞᄂᆞ다

若道土無英俊才 何得山有屈原宅 ᄒᆞ다가 ᄯᅡ해 英俊ᄒᆞᆫ 지죄 업다 닐올뎬 엇뎨 시러곰 뫼헤 屈原의 지비 이시리오

惜別行送向卿進奉端午御衣之上都

肅宗昔在靈武城 指揮猛將收咸京 肅宗ㅣ 靈武城에 겨샤 猛將을 ᄀᆞᄅᆞ치샤 咸陽ㅅ 셔울흘 收復ᄒᆞ시니라

向公泣血灑行殿 佐佑卿相乾坤平 向公ㅣ 피나게 우러 行殿에 ᄲᅳ리고 公卿宰相올 도아 乾坤올 平케 ᄒᆞ니라

逆胡冥寂隨煙燼 卿家兄

弟功名震 謂祿山ㅣ如烟燼之易滅也ㅣ라 ○거슨 ᄠᅳᆫ 되야 ᄃᆞᄒᆞ야 너와 ᄌᆡ와

를 좃거늘 그 뒷 집 兄弟의 功名ㅣ 震動ᄒᆞ니라 麒麟閣畫鴻鴈行紫

極出入黃金印 言兄弟之俱畫像麟閣也ㅣ라 ○麒麟閣앳 그륨 양ᄌᆞ는

그려기 버렷ᄃᆞᆺᄒᆞ니 紫極에 드나ᄃᆞᆯ 제 黃金印ᄋᆞᆯ 찻도다 尚書勳業超千

古雄鎭荊州繼吾祖 尚書ᄂᆞᆫ 荊南節度使衛伯玉也ㅣ라 甫의 遠祖

杜預ㅣ 鎭荊州ᄒᆞ니라 ○尚書의 功業ㅣ 千古사ᄅᆞ미게셔 뎐네ᄢᅦ도소니 荊州를 雄히

눌러쇼ᄆᆞᆯ 내 한아비ᄅᆞᆯ 니엇도다 裁縫雲霧成御衣拜跪題

封賀端午 雲霧ᄅᆞᆯ ᄆᆞᄅᆞ아 화 님금 오ᄉᆞᆯ ᄆᆡᆼᄀᆞ라 뎔ᄒᆞ고 ᄭᅮ러 封ᄒᆞ고셔 端午애

進賀ᄒᆞ놋다 向卿將命寸心赤 青山落日江湖白 下句ᄂᆞᆫ言別時之景ᄒᆞ다 ○ 向卿ㅣ命을가져가매 져근ᄆᆞᅀᆞ미 블그니 프른 뫼헤 디ᄂᆞᆫ 히예 ᄀᆞᄅᆞᆷ 므리 히옛도다

卿到朝廷說老翁 漂零已是滄浪客 老翁ᄋᆞᆫ甫ㅣ自謂라 ○ 그듸 朝廷에 가 늘근 한아비ᄅᆞᆯ 닐오ᄃᆡ ᄠᅥ러뎌 ᄃᆞᆫ녀 며 ᄒᆞ마 이 滄浪앳 나그내 ᄃᆞ외옛더라 ᄒᆞ라

醉歌行贈公安顏少府請顧八題壁

神仙中人不易得 顏氏之子才孤標 神仙ㅅ 가온ᄃᆡㅅ 사ᄅᆞ믈 수이 엇디 몯ᄒᆞ리니 顏氏ㅅ 아ᄃᆞ리 ᄌᆡ조 외ᄅᆞ왼 양지로다 天馬長鳴

待駕御秋鷹整翮當雲霄喻少府의負俊逸之才ᄒᆞ야以待用ᄇᆡ니라○天馬ㅣ 기리 우러 ᄡᅳ멍에 메여도 몯 기들오며 ᄀᆞᅀᆞᆳ 매 놀애 ᄆᆞᆯ고 ᄃᆞ려 구룸 ᄭᅴ 하도 놀혼 當ᄒᆞᆫ ᄃᆞᆺ도다

君不見東吳顧文學君不見西漢杜陵老그ᄃᆡᄂᆞᆫ 東吳ᄋᆡᆺ 顧文學ᄋᆞᆯ 보디 아니ᄒᆞᄂᆞᆫ다 그ᄃᆡᄂᆞᆫ 西漢ㅅ 杜陵 옛 늘그니ᄅᆞᆯ 보디 아니ᄒᆞᄂᆞᆫ다

詩家筆勢君不嫌詞翰升堂爲君掃글ᄒᆞᄂᆞᆫ 집과 부듸 양ᄌᆞᄅᆞᆯ 그ᄃᆡ 아쳗디 아니ᄒᆞᆯᄉᆡ 글지ᅀᅵ와 글스기로 지비 올아 그ᄃᆡᄅᆞᆯ 爲ᄒᆞ야 ᄡᅳ러ᄇᆞ리노라

是日霜風凍七澤烏蠻落照銜赤壁酒酣耳熱忘頭白蜀嶲州ㅣ接烏蠻部落ᄒᆞ니라

赤壁ᄋᆞᆫ在鄂게ᄒᆞ다○이나래셔리ᄇᆞᄅᆞᆷ매
ᄂᆞᆯ곱모시어니爲鸞애디ᄂᆞᆫ힛비치赤壁을
미깃도소니술취코귀ᄃᆡ
워머리ᄯᅥ유믈니조라

感君意氣無所惜

一爲歌行歌主客 主ᄂᆞᆫ謂少府ㅣ오客ᄋᆞᆫ甫與顧八也ㅣ라○그ᄃᆡ의意氣앗기논배업소믈感動ᄒᆞ야ᄒᆞᆫ번歌行을ᄒᆞ야主人과소놈놀애브르노라

白絲行

繰絲須長不須白越羅蜀錦金粟尺 金粟尺ᄋᆞᆫ以金粟으로飾尺也ㅣ라言染絲爲羅錦則喪其本質之潔白故로云不須白ㅣ라ᄒᆞ니라○실혀모로매길게ᄒᆞ고모로매하야켄아니홀디로다越ㅅ羅와蜀ㅅ錦을金粟자ᄒᆞ

로자히뇻다象床玉手亂殷紅萬草千花動凝碧

殷은赤黑色ㅣ라草花ᄂᆞᆫ錦紋이라言佳人ㅣ在象床而裁縫々니라○象牙床애셔玉

마ᄐᆞᆫ소내블근비치어즈러우니萬草와千花왜얼안프른비치뮈엿도다已悲

素質隨時染裂下鳴機色相射해얀으、드미時節을조차

믈드로믈ᄒᆞ마슬노니우ᄂᆞᆫ뵈트레버혀누리오니비치서르ᄡᅩ도다美人細

意熨帖平裁縫滅盡針線迹熨은以火라로展帛也ㅣ다言

縫爲舞衣니라○고온사ᄅᆞ미細흔ᄇᆞ드로가히뒤롤다려平케ᄒᆞ야몰ᄋᆞ아화바ᄂᆞᆯ실

자최업게ᄒᆞ뇻다春天衣著爲君舞蛺蝶飛來黃鸝

語此ᄂᆞᆫ言舞態歌聲ᄒᆞ니라○보ᇝ하ᄂᆞᆯ해니버君을爲ᄒᆞ야춤츠니나비ᄂᆞ라오ᄂᆞᆫᄃᆞᆺ

ᄒᆞ며곳고리말ᄒᆞ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落絮遊絲亦有情隨風照日

宜輕擧此ㅣ亦言舞者之便捷ᄒᆞ니라○디ᄂᆞᆫ柳絮와노ᄂᆞᆫ실왜任ᄇᆞ다잇ᄂᆞᆫᄃᆞᆺ

ᄒᆞ니ᄇᆞᄅᆞᄆᆞᆯ조ᄎᆞ며ᄒᆡᄅᆞᆯ비취여가ᄇᆡ야이들여슈미맛당ᄒᆞ도다香汗清塵

汚顔色開新合故寘何許顔色은指舞衣而言ᄒᆞ니라○옷곳

ᄒᆞᆫᄯᆞᆷ과ᄆᆞᆯᄀᆞᆫ드트리ᄂᆞᆺ비ᄎᆞᆯ더러이ᄂᆞ니새ᄅᆞᆯ어러내오녜ᄀᆞᄂᆞᆫ뫼화어듸두ᄂᆞ니오君

不見才士汲引難恐懼棄捐忍羈旅汲引은汲水引

綆ㅣ니喩薦進人才ᄒᆞ니라此ᄂᆞᆫ言絲ㅣ本質素而漆爲羅錦ᄒᆞ야裁爲舞衣ᄒᆞ니華美

極矣나 然清塵ㅣ 稍汚則棄之ᄒᆞᄂᆞ니 如君子ㅣ 為人所用ᄒᆞ다가 不盡其才而便棄故로 寧甘心忍於羈旅而不輕進也ㅣ니라○그ᄃᆡ는 저조ᄒᆞᆯ 사ᄅᆞᄆᆡ ᄡᅳ유미 어려우믈 보더 아니ᄒᆞ논다 ᄇᆞ릴가 저히나 그ᄃᆡ 내 ᄃᆞ외야 슈믈 ᄎᆞᆷᄂᆞ니라

百憂集行

憶昔十五心尚孩 健如黃犢走復來 ᄉᆞ랑혼ᄃᆡ 네 열다ᄉᆞᆺ 신제 ᄆᆞᅀᆞᆷ이 오히려 아히라 健壯ᄒᆞ미 누른 쇠야지 ᄃᆞᄅᆞ락 도로 오락 홈 ᄀᆞ다라

庭前八月梨棗熟 一日上樹能千回 ᄠᅳᆯ 알ᄑᆡ 八月에 ᄇᆡ와 대최 니거든 ᄒᆞᄅᆞ 남ᄀᆡ 오ᄅᆞᆯ 能히 즈믄 디위 옴ᄒᆞ다라

即今倏忽已

五十坐卧只多少行立끌이제눈믄드시ᄒᆞ 마퀴니ᄃᆞ외니안ᄌᆞ

며누우미오직하고녀 여셔여호문뎌고라 强將笑語供主人悲

見生涯百憂集고돌롸우움파믈ᄉᆞ몰가셔 ᄂᆡ主人을供奉ᄒᆞ니生涯예

온실으미모도 몸슬허보노라 入門依舊四壁空老妻覩我

顔色同門의드려녜로브터네보ᄅᆞ미부엿 ᄂᆞ니늘근겨지비나ᄅᆞᆯ보나ᄂᆞᆾ비치

ᄒᆞᆫ가지 로다 癡兒未知父子禮叫怒索飯啼門東

庖廚之門ㅣ在東ᄒᆞ니라○어린아ᄒᆡ父子 의禮ᄅᆞᆯ아디몯ᄒᆞ야우르고怒ᄒᆞ야밥달라

ᄒᆞ야門ㅅ東녀 킈셔우ᄂᆞ다

莫相疑行

男兒生無所成頭皓白牙齒欲落眞可惜 男兒

ㅣ나일운이리업고어리하야셰니니憶獻

㑹더고져ᄒᆞ니眞實로可히슬프도다

三賦蓬萊宮自怪一日聲輝赫 三賦ᄂᆞᆫ即三 大禮賦ㅣ라

〇셰賦를蓬萊宮에받ᄌᆞ온던저긔ᄉᆞ랑ᄒᆞ니

ᄒᆞᆫ긋나래소리빗나몯내怪異히너기더라

集賢學士如堵墻觀我落筆中書堂 天寶中 에甫ㅣ

獻三大禮賦ᄒᆞ야ᄂᆞᆯ玄宗ㅣ奇之ᄒᆞ샤使待

詔集賢院ᄒᆞ고命宰相試文章ᄒᆞ니라〇集

賢殿學士ㅣ담ᄀᆞ치횟도로안자셔

中書堂애내붇디요ᄆᆞᆯ보더니라 往時文

彩動人主今日飢寒趨路傍너교빼빗나미님그믈뮈오ᄋᆞᆸ

커니오ᄂᆞᆳ나랜주우리고치워긼ᄀᆞ이ᄃᆞᆫ노라晚將末契托年少當

面輸心背面笑늘거그뎻사피요ᄆᆞᆯ가져나져므사ᄅᆞᄆᆡ게브토니ᄂᆞ촐

當ᄒᆞ얀ᄆᆞᄋᆞᄆᆞᆯ보내요뒤ᄂᆞ촐도라ᄂᆞᆫ웃ᄂᆞ다寄謝悠悠世上兒不

爭好惡莫相疑悠悠ᄒᆞᆫ世上앳아ᄒᆡ거긔媿謝호ᄆᆞᆯ브티노니됴ᄒᆞ며사

오나오ᄆᆞᆯᄃᆞ토디아니ᄒᆞ노니서르疑心ᄒᆞ디말라

短歌行贈王郎司直

王郎酒酣拔劍斫地歌莫哀我能拔爾抑塞

磊落之奇才王郎이술醉ᄒᆞ고갈ᄲᅢ혀ᄯᅡᄒᆞᆯ 베티고놀애ᄅᆞᆯ노외아슬플업
시브르ᄂᆞ니내能히네의抑塞磊 落ᄒᆞᆫ奇異ᄒᆞᆫ지조ᄅᆞᆯᄲᅢ혀내노라豫章翻風
白日動鯨魚跋浪滄溟開ᄡᅳᆫ以美材大魚 로比王郎之磊落
ᄒᆞ다○豫章남기ᄇᆞᄅᆞ매두위이즈니白日 ㅣ뮈오고래믈ᄭᅧ레ᄠᅧ니바ᄅᆞᆳ므리여ᄂᆞᆫᄃᆞᆺ
ᄒᆞ도 다 且脫劍佩休徘徊西得諸侯棹錦水欲
向何門趿珠履春申君의上客ㅣ皆趿珠履 ᄒᆞ니라○찻ᄂᆞᆫ갈ᄒᆞᆯ바사머
ᄆᆞ디아니ᄒᆞ고西ㅅ녀그로諸侯ᄅᆞᆯ어더錦 水에빗지어가ᄂᆞ니뉘짓門을向ᄒᆞ야구슬
시ᄂᆞᆯ신고 ᄒᆡᆼᄂᆞ니오 귀 仲宣樓頭春已深青眼高歌望

吾子眼中之人吾老矣 仲宣樓ㅣ在荊州ᄒᆞ니라○仲宣의樓ㅅ머리에 늜비치ᄒᆞ마 기프니 ᄌᆞ론 눈ᄋᆞ로노ᄂᆞᆯ애 ᄒᆞ려 그듸롤 ᄇᆞ라오니 늣가온ᄃᆞᆺ 사ᄅᆞ면내 늣도다

赤霄行

孔雀未知牛有角渴飲寒泉逢觝觸 此ᄂᆞᆫ言孔雀與牛ㅣ非同類故로見辱ᄒᆞᄂᆞ니以況君子ㅣ必受侮於小人也ㅣ니라○孔雀ㅣ 쇠ᄲᅳᆯ 이슈믈 아디몯ᄒᆞ야 목ᄆᆞᆯ라 ᄎᆞᆫ ᄉᆡ믈 마시다가 다ᄃᆞᆯ오ᄆᆞᆯ 맛나도다 赤霄玄圃須往來翠尾金花不辭辱 翠尾金花ᄂᆞᆫ孔雀羽毛之色ㅣ라○블ᄀᆞ

하ᄂᆞᆯ과 玄圃애 모로매 가며 오며 ᄒᆞᆯ시 므른
仙리와 金ᄀᆞᆺ ᄆᆞᄃᆞᆫ 지치 辱ᄋᆞᆯ 마디 몯ᄒᆞ놋다
江中淘河嚇飛燕 銜泥却落羞華屋 淘河ᄂᆞᆫ 鵜鶘ㅣ
니 燕ㅣ 銜泥어ᄂᆞᆫ 淘河ㅣ 疑爭魚而嚇之ᄒᆞ
니 以況小人之猜忌君子也ㅣ니라 嚇ᄂᆞᆫ
拒物聲ㅣ라 ⊙ ᄀᆞᄅᆞᆷ 가온ᄃᆡ 淘河ㅣ ᄂᆞᄂᆞᆫ 져
비ᄅᆞᆯ 삑ᄒᆞᄃᆡ 믈엇던 ᄒᆞᆯᄀᆞᆯ 도로 디오 빗난 지
비가쉬 븟그리놋다 皇孫猶曾蓮勺困 衛莊見貶傷其
足 蓮勺ᄋᆞᆫ 縣名ㅣ니 漢宣ㅣ 爲皇孫時예 喜
游俠ᄒᆞ야 常爲人의 所困辱於蓮勺ᄒᆞ니
라 齊人鮀 莊子ㅣ 見刖於靈公ᄒᆞ니 此ᄂᆞᆫ 承
上句ᄒᆞ야 以見君子之見辱也ㅣ라 ○皇孫
ㅣ 오히려 일즉 蓮勺애 困히 드니며 衛莊
ㅣ 貶黜호ᄆᆞᆯ 보아 그 바ᄅᆞᆯ 헐야ᄇᆞ리니라 老

翁愼莫怪年少 葛亮貴和書有篇 老翁은 甫ㅣ라 諸葛

亮書에 有貴和篇ᄒᆞ니 言處世而不能和則

必召辱矣니라 ○ 늘근 한아비ᄂᆞᆫ 삼가 나 져

믄 사ᄅᆞᆷ을 怪異히 너기디 마롤디니 諸葛亮

이 和同호ᄆᆞᆯ 貴히 너기논 글월 篇ㅣ 잇ᄂᆞ니

라

丈夫垂名動萬年 記憶細故非高賢 細故ᄂᆞᆫ 小故

事也ㅣ라 言丈夫ᄂᆞᆫ 當務寬弘之德而立功

業ㅣ니 何必記舊怨也ㅣ리오 ○ 큰 사ᄅᆞ미

일후믈 드리워 萬年에 뮈여가게 홀디니 져

근 緣故ᄅᆞᆯ 記錄ᄒᆞ야 ᄉᆞ랑호미 노ᄑᆞᆫ 어딘 사

ᄅᆞ미 아니니라

去矣行

君不見韝上鷹一飽則飛掣焉能作堂上燕

銜泥付炎熱 此ᄂᆞᆫ言賢士ㅣ當如鷹之高飛 라不可如燕之來附ㅣ니此ㅣ不阿權貴之門也ㅣ라 ○그듸ᄂᆞᆫ 보디 아니ᄒᆞᄂᆞᆫ다 버러우흿 매 ᄒᆞᆫ번 비브르면 ᄂᆞ라ᄀᆞ리터 가ᄂᆞ니 엇뎨 能히 집우흿 져비 ᄃᆞ외야 ᄒᆞᆰ 믈어 더온 ᄃᆡ 브티리오

野人曠蕩無靦顔豈可久在王侯間 野人은 甫ㅣ라 靦顔은 無愧色也ㅣ라 ○미햇 사ᄅᆞᄆᆞᆫ ᄆᆞᄋᆞᆷㅣ 현츨ᄒᆞ야 번드ᄒᆞᆫ ᄂᆞ치 업소니 엇뎨 可히 王侯ㅅ ᄉᆞ이예 오래 이시리오

未試囊中飡玉法明朝且入藍田山 藍田山ㅣ在長安ᄒᆞ니 出美玉ᄒᆞᄂᆞ니라 飡食玉은 作屑食之ᄒᆞ리 令人却老ᄒᆞᄂᆞ니 仙家

애 有喩玉法ᄒᆞ니라○ᄂᆞ모 안해 티헛ᄂᆞᆫ 玉 먹ᄂᆞᆫ 法을 맛보디 아니ᄒᆞ얏노니 너 일아ᄎᆞ미 藍田山ᄋᆞ로 ᄃᆞ려가리라

貧交行

翻手作雲覆手雨紛紛輕薄何須數 雲雨ᄂᆞᆫ 喩交情之無常ᄒᆞ니라○손 드위혀 구루믈 짓고 소ᄂᆞᆫ 업더리혀 비롤 ᄒᆞᄂᆞ니 어즈러운 가비얍고 열운 사ᄅᆞᄆᆞᆯ 엇뎨 구틔여 혜리오 君不見管鮑貧時交此道今人棄如土 鮑叔牙ㅣ 少與管仲游ᄒᆞ더니 後에 薦管仲於桓公ᄒᆞ니라○그듸ᄂᆞᆫ 管仲鮑叔의 가난ᄒᆞᆫ 제 사괴요ᄆᆞᆯ 보디 아니ᄒᆞᄂᆞ다 이 道롤 이제 사ᄅᆞ미 ᄇᆞ료ᄆᆞᆯ

됴믈ᄒᆞᆯᄆᆞ티ᄒᆞᄂᆞ다

短歌行送邛州錄事歸合州因寄蘇使君

前者途中一相見人事經年記君面言以人事之故로經年不能再見ᄒᆞ고但記憶君面而已也ㅣ라○앏픳길가온대ᄒᆞᆫ번서르보고사ᄅᆞ미일로ᄒᆞ야ᄒᆡ지나ᄃᆞ록그딋ᄂᆞᄎᆞᆯᄆᆞᄋᆞ매記錄ᄒᆞ요라

後生相勸何寂寥君有長才不貧賤後生이서르勸勵호미ᄌᆞ모괴외ᄒᆞ니그듸ᄂᆞᆫ긴ᄌᆡ죄이실ᄉᆡ貧賤티아니ᄒᆞ리로다

君今起柁春江流余亦

沙邊具小舟 그듸이제봆ᄆᆞᄅᆞᆷ흐르ᄂᆞᆫ므레ᄇᆡ출닐어가ᄂᆞ니나도ᄯᅩ몰래ᄀᆞ애져근ᄇᆡ를ᄆᆡᆼᄀᆞ라둣노라

幸爲達書賢府主江花未落會江樓 府主ᄂᆞᆫ卽蘇使君ㅣ라○幸ᄒᆡ為ᄒᆞ야어딘府主ᄭᅴ내글워ᄅᆞᆯ通達ᄒᆞ라ᄀᆞᄅᆞ매고지디디아니ᄒᆞ야ᄲᅧᄀᆞᄅᆞᆷ樓에相會호리라

分類杜工部詩卷之二十五 終